

## □ 금호읍

### \*관정리

지정(芝亭)과 관지(官旨)가 합해서 된 마을이다. 약 350여년전 벽진 이씨(碧珍 李氏)로 벼슬은 주부(主簿)이신 이수인(李守認)이라는 선비가 지정리(芝亭里)를 개척하여 마을을 만들어 원래는 지정리라 불리었다. 그런데 일설에는 池氏가 정자를 짓고 부터이고 또는 땅이 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 300여년전에 월성 이씨(月城 李氏)가 관지리(官芝里)를 개척했다고도 하며 거여면의 소재지로 관청에 종사하는 선비가 많이 거주하였다 한다. 월성 최씨 및 월성 이씨가 많이 산다.이 마을 근처에 당나무 거리가 있다. 해 목은 큰 당나무 밑의 녹음을 옛 조상들께서는 휴식처로 이용하였을 것이다. 지금은 나무는 사라져 버리고 흔적만 남아 있다. 관지(官芝)에는 서편에 붉은 색깔의 흙이 나온다. 웅기를 구웠던 곳으로 지금도 간혹 토기들이 나온다. 현재 이 마을 앞에 기차역이 생겨서 편리하다.

### \*교대리

지정(芝亭)과 관지(官旨)가 합해서 된 마을이다. 약 350여년전 벽진 이씨(碧珍 李氏)로 벼슬은 주부(主簿)이신 이수인(李守認)이라는 선비가 지정리(芝亭里)를 개척하여 마을을 만들어 원래는 지정리라 불리었다. 그런데 일설에는 池氏가 정자를 짓고 부터이고 또는 땅이 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 300여년전에 월성 이씨(月城 李氏)가 관지리(官芝里)를 개척했다고도 하며 거여면의 소재지로 관청에 종사하는 선비가 많이 거주하였다 한다. 월성 최씨 및 월성 이씨가 많이 산다.이 마을 근처에 당나무 거리가 있다. 해 목은 큰 당나무 밑의 녹음을 옛 조상들께서는 휴식처로 이용하였을 것이다. 지금은 나무는 사라져 버리고 흔적만 남아 있다. 관지(官芝)에는 서편에 붉은 색깔의 흙이 나온다. 웅기를 구웠던 곳으로 지금도 간혹 토기들이 나온다. 현재 이 마을 앞에 기차역이 생겨서 편리하다.교대는 용교(龍橋)와 용대(龍臺)로 된 마을이다. 인기리(仁基里)는 하천이 흐르고 있다. 월성 이씨가 최초로 개척 하여 바르고 어진사람들이 많이 출생하라고 인기라 했다. 용대는 약 280년전에 황윤신(黃允信)이라는 선비가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다가 지형을 살펴보니 용이 누워 있는 형상이라 하여 이 자리에 마을을 형성하면 만석꾼이 날 자리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그 후 영천 최씨가 개척하여 이 곳에 줄곧 살고 있다. 갈포(葛蒲) : 약100년 전에 이곳에 중보(中淤)가 있었으나 집이 들어섬에 따라 교대 2리에 속해서 금호시장이 되어 버렸다.

### \*구암리

구복(龜伏)과 가암(佳岩)으로 된 마을이다. 가암(佳岩)은 9개의 바위가 아름답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구암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구암지에서는 수령이 약 200년 정도 되는 큰 버드나무 1그루가 있다. 구암(龜岩)은 구암(九岩)이라고 하는데 9개의 바위중에서 한개가 거북의 모습처럼 생겼기에 龜자를 넣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 一說에 의하면 약300여년전에 평산 신씨(平山 申氏)가 이 마을에 와서 참나무 숲을 제거하고 마을을 개척했다고도 한다.

### \*남성리

약 400년전에 파평 윤씨(坡平 尹氏)가 정착하면서 마을 입구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것의 모양이 달모양이라 해서 남성(南星)달이라 했다. 남성달이는 남성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며 현재 약 30여가구가 살고 있다. 마을 앞 정상에 큰 바위가 있다. 녹은방(錄隱坊) : 남성 서쪽에 있으며 현재 10여가구가 살고 있다. 남서로 큰 산이 뻗어 있고 그리고 전면이 깎아 세운 절벽이며 마을의 터가 그 옛날 강물이 흘러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수풀이 쌓여있는 산골짜기에 가느다란 길이

옛날부터 있었으나 풀로서 길을 감추었다하여 노은방(路隱坊)이란 말도 있다.

#### \* 냉천리

냉천은 마을 동쪽 500여m 지점에 약 20평 정도의 찬물이 솟는 샘이 있다. 여름에 땀띠가 없어질 정도로 차고 약효가 있었다. 지금은 거의 매몰되고 약 2평 정도의 샘이 있을 뿐이다, 中보는 냉천 서쪽에 있는 마을이며 보가 있어서 생긴 이름이다. 구 마을 사이에 동내산이 있다. 거목(巨木)들이 있어서 이 나무들이 마을을 보호해 준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들을 신목(神木)으로 추앙하고 적극 보호하고 있다.

#### \* 대곡리

대배(大拜)와 유곡(幽谷)이 합해서 大谷이 되었다. 약400여년전에 개척된 마을이라 한다. 골짜기가 크고 길며 깊다고 하여 유곡(幽谷)이라 칭하다가 대곡이라고 했다하며 마을 입구에 쌍효각(雙孝閣)이 있다. 대배(大拜)는 마을 앞에 언덕이 있는데 언덕의 바위가 큰절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여 大拜라 했다 한다. 大拜윗마을에 암자가 있으며 그 암자에 기원하면 소원이 성취된다 한다.

#### \* 대미리

대리(大里)와 도미(都美)가 합하여 된 마을이며 대리(大里)는 약 500여년 전에 영천 이씨(李氏)가 개척했다고 전한다. 옛날에 고현면 소재지라고 전해오고 있다. 도미(都美)는 미리(美里) 또는 귀귀리(歸貴里) 또는 호미리(虎尾里)라고 하며 통일신라시대에 합천이씨(陝川李氏)가 이 곳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골짜기의 모습이 마치 여자가 누워 있는듯 하며 남향이라서 따뜻하여 포근한 느낌을 준다. 귀한 곳에 왔다는 뜻으로 귀귀리(歸貴里)라 했다 한다. 또 지형을 다시 볼때 호랑이 꼬리 부분이 이 마을 모습과 같다하여 호미리(虎尾里)라 부르기도 한다. 또는 동네 사람들의 마음씨가 비단같다 하여 미리(美里)라고도 한다.

#### \* 덕성리

대리(大里)와 도미(都美)가 합하여 된 마을이며 대리(大里)는 약 500여년 전에 영천 이씨(李氏)가 개척했다고 전한다. 옛날에 고현면 소재지라고 전해오고 있다. 도미(都美)는 미리(美里) 또는 귀귀리(歸貴里) 또는 호미리(虎尾里)라고 하며 통일신라시대에 합천이씨(陝川李氏)가 이 곳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골짜기의 모습이 마치 여자가 누워 있는듯 하며 남향이라서 따뜻하여 포근한 느낌을 준다. 귀한 곳에 왔다는 뜻으로 귀귀리(歸貴里)라 했다 한다. 또 지형을 다시 볼때 호랑이 꼬리 부분이 이 마을 모습과 같다하여 호미리(虎尾里)라 부르기도 한다. 또는 동네 사람들의 마음씨가 비단같다 하여 미리(美里)라고도 한다.예부터 있었던 마을 이름으로 임진왜란때에 월성이씨가 왜병란(倭兵亂)을 피하여 이곳에 와 정착했다 하며 '덕시', '덕재', '덕성(德城)'이라 한다. 언덕 위에 있으며 경산시에서 영천시로 들어오는 경계부근에 있다. 1987. 1. 1일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의 20여가구가 이 마을로 편입되었다.

#### \* 봉죽리

죽방(竹坊), 봉산(鳳山), 곡촌(谷村)이 합하여 된 마을이다. 1720년대에 해주 吳氏가 개척한 곡촌(谷村)이 있으며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 곡촌 못이 있고 그 아래에 모여산다. 현재 10여가구가 살고 있다. 죽방(竹坊)은 김해 김씨가 이 마을을 개척하여 대나무를 많이 심어 전 마을이 대나무 숲으로 둘러 싸였다 하여 竹坊이라 했다 한다. 대나무가 많음으로 동쪽에 죽림사(竹林寺)가 있다.

(신라시대의 고찰) 새터는 거여면이었을 때 새동내가 이루어 졌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삼호리

삼수(三水), 가라(加羅), 용호(龍湖)의 3개 마을이 합한 것이다. 약 300여년전에 생긴 강정(江亭)과 가라골(駕羅谷) 마을을 합하여 삼호리가 되었고 약 100여년전 홍수로 3개의 沼가 생겼다. 江亭은 약350년전 마을 앞을 흐르는 강가에 큰 정자가 있었는데 이 마을에 길흥사가 있을때 이 정자에서 소원을 빌었다고 한다. 이 마을 중앙에 위치한 창주서원(蒼州 書院)에는 충정공(忠貞公) 정재조상치(靜齋 曹尙治)선생의 신도비가 서 있다. 선생은 조선 世宗 1년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 부제학(副提學)이 되었으나 世祖가 왕위 찬탈을 한 후에는 벼슬을 버리고 이 마을에 와 살다가 他界하셨다. 암마, 가라골, 가라곡(駕羅谷)은 조선시대에 생겼으며 마을의 모양이 말모양으로 생기고 비단을 넣어 말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三星, 三水是 三星山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야무산(野無山) 숙재는 수키와장으로 못을 막았다 하여 숙재라 했다.

### \*석섬리

입석(立石)과 섬촌을 말한다. 마을 개척당시 동리앞에 선돌이 4개 있다하여 立石이라고 칭한 곳과 오천 정씨가 개척한 두꺼비 모양의 바위가 있는 섬촌이라 칭한 마을을 말한다. 씨족사회때 천제(天祭)를 지냈던 곳이라고 전해오는 立石이 지금도 3개 있다. 양 마을의 형성연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선돌을 볼때 고대로부터 인류가 정착하여 하늘에 제사지내고 또 죽으면 그속에 매장(埋葬)했다는 근거를 찾아 볼 뿐이다.

### \*성천리

덕천(德川), 덕리(德里), 대성(大成)이 합하여 된 마을이다. 덕천은 가장 큰 마을이며 한양 조씨(趙氏)가 가장 많이 살고 있고 원당(元堂)은 조선시대에 관인이나 또는 벼슬아치들이 쉬어가는 원(院)이 있었다고 하여 원당(元堂)골이라 불리어지고 있다. 우버리(于伐)는 마을 앞에 웅덩이 못을 막고부터 병어리가 많이 났다고 한다. 또 마을간에 싸움이 있을시 소꼬리에 불을 붙여 진격하여 전쟁에 승리 하였다 하여 우별이라고 한다. 샘골과 웃물 및 아랫물등의 자연부락이 있다. 아랫물은 약 100년전에 생긴 마을이다. 약 260여년전 "김부민"이라는 사람이 마을을 개척했다 하며 당시 큰 "沼"와 "江"이 있었으므로 덕천(德川)이라고 했으며 또 대성전(大成殿)이라는 전(殿)이 있었고 마을앞에 흐르는 내(川)을 따서 성천(成川)이라 칭한다.

### \*신대리

옛날에는 현재의 마을뒤 야산밑에 "비선동" 이라는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서기 1600년경 연안 차씨가 현재의 마을로 이주할 당시에 새집을 지었다하여 신길리(新吉里)라 부르다가 신대리(新垈里)라 했다. 땅섬은 옛날 이 곳을 흐르는 금호강이 깊었는데 흙이 퇴적되어 섬을 이루었다 한다. 새터, 신대, 용호동은 구한말년까지는 들이었다. 앞들 남쪽에 유명한 송정부가 있으며 북쪽에 삼호로 가는 신당고개가 있다.

### \*신월리

月下와 新興의 一部가 합하여 된 마을이다. 금꾸디 : "금구덩이" 라는 뜻인듯 하다. 일제때에 금을 캐려고 개발한 곳으로 부근에 금의 산출이 많았다. 일제때는 잘 사는 곳이었다. 그러나 해방후는 가난한 마을이 되어버려 다시 좋은 마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붉은디, 붉은디기 :

북은 흙이 산출됨으로 옹기를 구웠다. 옛날에는 洞祭를 지냈다. 월하리(月下里) : 으뜸되는 마을로 뒷산이 반월(半月)처럼 생겼다. 새각단은 새로 생긴 마을이고 큰각단은 큰마을이며 중간각단은 중간에 있다. 마을이 생긴것은 아주 옛날이다. 월하리 고갯마루에 사당이 있어 당고개라 하던 것이 지금은 이 고개를 넘어 갈때 땀을 많이 흘리는 고개라 하여 "땀고개" 또는 "땅고개"라 한다. 대구-영천 사이의 도로를 개설할때 경사가 높은 산지를 깎아 만들었는데 그때 생겼다고 땅꼭이라 칭한것이 지금은 "땅고개"가 되었다고 한다. 영천시 서부동과 금호읍과의 경계지역에 있는 고개다. 이 마을을 싸고 있는 숲으로 팔공산 도둑봉에서 보이지 않도록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어 숲이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며 현재 대나무는 없어지고 소나무만 있다. 신월지 못둑 밑에 탑이 있어 탑못이라 하며 신라 대찰이었으나 지금은 못이 되었다.

### \*약남리

약남은 가야(佳野)와 도촌(鳥村)으로 되었다. 술남, 수남은 마을에서 중심되는 곳인데 옛날 칠백면(七百面) 사무소가 있었던 곳이다. 옛날 이곳에 입주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 파도 물이 나오므로 "水"자와, 위치가 남이라 "水南"이라 했다. 현재 용궁 전씨(龍宮 全氏)가 살고 있는데 임진왜란때 영천북성에 功이 많은 전삼달(全三達)장군의 자손들이다. 장군의 어서각(御書閣)이 있다. 섬촌(鳥村)은 섬모양으로 생겼으며 청석비리(靑石碑里) 또는 청석리는 영천군수였던 이학위(李鶴委)가 흥년이 들어서 기아에 허덕이는 군민에게 양식을 주었더니 면민들이 군수의 송덕비를 세웠다. 碑가 있기에 청석비라 했다. 가야(佳野)는 약 400여년전 유씨(兪氏)인 농부가 산야초를 베고 논과 밭을 일구어 살았는데 수원이 좋고 땅이 기름져서 농사 짓기에 편리한 곳이라 佳野라 했다 한다.

### \*어은리

어은(魚隱)과 옛 신전(新田)일부가 합해진 곳이며 어은동, 어은동이라고 한다. 마을 앞에 있는 강에 고기가 잘 번식한다. 예부터 고기가 놀란다고 하여 농악놀이를 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약300여년전 성균관생원 서열(成均館生員 徐悅)이 마을을 설립하여 도장곡(道藏谷)이라 했으나 그후 마을 밑에 있는 큰沼에 "이심이"가 살고 있기에 어은이라 했다. 새마실은 1959년도 사라호 태풍후에 생긴 마을로서 주로 사과농사를 하고 있다.

### \*오계리

오계(五溪)는 오종리(五宗里)와 단계(丹溪)로 되었다. 단계, 또는 사교(沙橋) 또는 사근다리라고도 한다. 가장 큰 마을이며 郭, 曹, 崔氏가 주로 살고 있으며 을사사화(乙巳土福) 때 경제 관순(警齋 郭洵)선생이 옥살이 할 때 마을 안 개울이 붉게 흘렀다 하여 丹溪라고 했다 한다. 丹溪라 부르기 전에는 시장이 있었다. 오종리(五宗里)는 宗里라고도 한다. 새터북쪽에 있는 마을로 60가구가 살고 있다. 조선 正祖때 병마절도사를 지낸 조학신(曹學臣)선생이 入鄉한 곳이며 마을 안쪽 언덕을 울창한 송림이 마을을 감싸고 있다. 줄잡아도 한아름되는 소나무가 250本은 될것이다. 조학신선생께서 직접 심으신 송림(松林)이다. 채약산 기슭에서 시작하여 5개의 민둥산이 서북쪽으로 연이어져 있으며 그 마지막 다섯째의 민둥산을 끼고 아래에 마을이 생겼으니 오종동(五宗洞)이라 한다. 오계리는 일제때 행정구역 개편때 오종동의 "五"자와 단계(丹溪)의 "溪"자를 따서 오계리라 한데서 연유되었다.

### \*원기리

원기(元基)는 원방(元方), 안기(安基), 마단(麻丹)으로 되었다. "元"자와 "基"자를 합하여 "元基"라 하게 되었다. 섬뜰(鳥坪) : 사방이 야산으로 둘러싸였으며 지형이 섬처럼 생겼다. 마단(麻丹) : 조

선 中宗때 경재 곽순(警齋 郭珣)선생이 태어난 곳이다. 선생은 대사간(大司諫)에 재직하다가 을미사화(乙巳土禍)를 당하여 옥사할 때 "죽으면 고향의 대마(大麻)가 붉을 것이다"고 하였다 한다. 1545년 9월 15일 마단의 삼밭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3일간에 계속해서 색이 변했다. 마을 사람들은 凶兆(흉조)라하여 놀랐는데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四諫院, 司諫으로 재임하던 경재 곽순 선생의 反樞(객지에서 죽은 시체를 고향으로 옮겨옴)행렬이 서울서 도착하자 비로소 그 凶兆를 알게 되었다. 그후 경재 선생을 사모한 나머지 마을을 麻丹이라 했다 한다. 元方은 중심되는 마을로서 본거지라 한다. 四方이 넓은 들이고 들 가운데 위치한다. 학당골 서당(學堂谷 書堂)이 있었던 곳이다.

#### \* 원제리

원기(元基)는 원방(元方), 안기(安基), 마단(麻丹)으로 되었다. "元"자와 "基"자를 합하여 "元基"라 하게 되었다. 섬들(島坪) : 사방이 야산으로 둘러싸였으며 지형이 섬처럼 생겼다. 마단(麻丹) : 조선 中宗때 경재 곽순(警齋 郭珣)선생이 태어난 곳이다. 선생은 대사간(大司諫)에 재직하다가 을미사화(乙巳土禍)를 당하여 옥사할 때 "죽으면 고향의 대마(大麻)가 붉을 것이다"고 하였다 한다. 1545년 9월 15일 마단의 삼밭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3일간에 계속해서 색이 변했다. 마을 사람들은 凶兆(흉조)라하여 놀랐는데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四諫院, 司諫으로 재임하던 경재 곽순 선생의 反樞(객지에서 죽은 시체를 고향으로 옮겨옴)행렬이 서울서 도착하자 비로소 그 凶兆를 알게 되었다. 그후 경재 선생을 사모한 나머지 마을을 麻丹이라 했다 한다. 元方은 중심되는 마을로서 본거지라 한다. 四方이 넓은 들이고 들 가운데 위치한다. 학당골 서당(學堂谷 書堂)이 있었던 곳이다.

#### \* 호남리

호남리(湖南里)는 신촌(新村)과 신전(新田)의 일부가 합했다. 이곳은 원래 칠백면(七百面)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금호면에 속하였다. 약 350여년전 염씨(廉氏)가 개척했으며 임란시에는 군수가 이 곳으로 군민을 피난시켰다고 전해오고 있다. 금호의 남쪽에 위치한다하여 호남이라 했다 한다. 신전에는 옛날에 군량미창고가 있었기에 사창이라고 한다. 지금은 그 곳에 느티나무가 서 있다. 입구에 있는 산에 옛날 마을의 행운(幸運)을 기원하는 동제를 지냈다. 신전(新田)에는 김녕 김씨가 처음 살았으나 지금은 한가구도 없으며 파평 윤씨, 경주 김씨, 경주 최씨, 창녕 조씨 등이 살고 있다.

#### \* 황정리

조선시대인 1610년대부터 영천군 거여면 황정이라 했다가 그대로 행정명칭이 되었으며 뒷산 이름이 유봉산이다. 봉(鳳)과 황(凰)과는 자웅관계(雌雄關係)이므로 황정이라 했다. 거여는 옛날 소재지였으며 "울타리 없는 마을"이 되어 있다.

## □ 청통면

### \*계지리

망지리(望芝里)는 약 500년전에 이현중(李玄重)이라는 선비가 이 마을을 개척했다 하며 그후 이현필(李玄弼)이라는 선비가 봉화산(烽火山)을 바라본다는 뜻에서 망지리(望芝里)라 했다. 무연골(舞燕谷)은 양무생(楊武生)이라는 선비가 약 300여년전에 이 마을을 개척했다 한다, 넓은문은 지금부터 100여년전까지 만해도 신령에서 넘어오는 곳에 암석(岩石)으로된 넓은 문이 있어 일명 판문(板門)이라고도 했으나 지금은 말만 전하지 흔적을 찾을 길이 없다. 강변(江邊)은 청통면에 마을이 새로 생겼기에 생긴 이름이며, 뒷골 또는 後谷, 혹은 城里이라고 하는 마을은 望芝里 뒤쪽에 있다 해서 붙인 이름이며 모두 예부터 人類가 정착했던 곳이다.

### \*계포리

대재(大才)는 조선 성종때 유명한 윤죽재(尹竹齋)의 출생지이기에 대재(大才)가 출생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대포(大浦)는 수원이 풍부한 곳이고 하계(下桂)는 마을 뒤에 숲이 우거진 곳이라 하계 지대재(下桂 芝大才), 대포(大浦)로 되었다. 성종원년이 1470년이며 이 당시 이미 마을이 형성되었다.

### \*대평리

대평(大平)은 약500여년전에 지덕상(池德相)이라는 사람이 이 마을을 처음 개척하였는데 당시에 금호평야를 내다보니 한눈에 바다같이 평평하게 보인다고하여 평촌(平村)이라 칭하였으며, 또 150년전에 박일제(朴逸堤) 선생께서 사일지를 크게 증축하여 물이 충만하고 보니 바다와 같이 수평을 이루므로 大平이라 개칭하였다. 대정동은 밀양 박씨 13대손 박일제(朴日堤)선생께서 지은 대은정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으며 마을 뒤에는 대정골이 있다. 대정(大亭)과 평촌(平村)이 합해서 되었다.

### \*보성리

최우현(崔佑鉉)이라는 선비가 봉수동을 처음 개척했으며, 목성(木城)은 각종 수림이 울창하였으며, 또 주위의 산들이 성처럼 쌓여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꺾조골은 이상하게도 꺾덕구라는 물고기가 많이 있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1914년 보목(甫木)의 "甫"자와 대성(大城)의 "城"자를 따서 보성리라 한다.

### \*송천리

덕산(德山)은 월성리(月城里)에서 강을 건너 높은 언덕에 위치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松川은 제일 먼저 터를 잡았다고 하며 옛날에 많았던 소나무의 "松" 자와 흐르는 내의 "川" 자를 합해 지은 이름이라 하며, 월성리(月城里)는 최일만(崔日萬)이라는 선비가 약 200년전에 이 마을을 개척했다 한다. 개척당시 마을 지리인 능성(菱城)이 반월(半月)과 같다 해서 월성리라 했다한다. 송천, 덕성, 월성의 3개의 마을이 합해서 된 마을이다.

### \*신덕리

덕리(德里)는 장영한(張永翰)이라는 선비가 약300년전에 마을을 개척했으며 서당마을과 두 자연부락으로 되어있다. 1914년 행정구역변경시 신덕이라 개칭한다. 새터는 옛날은 동리가 있었던 흔적이 있으나 지금은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서당촌(書堂村)은 옛날에는 마을이 번창하여

書堂이 있었으며 지금은 사일초등학교가 있다. 성리(城里)는 약 150여년전에 한후영(韓厚榮)이라는 선비가 신덕(新德)이라 개칭하였고, 학리(鶴里)는 땅모양이 학모양이며 날개부분에 집을 지으면 지탱치 못한다하여 등부분에 집이 있다. 꼬리 부분에 2개의 바위가 있는데 학구(鶴邱)라 전한다.

#### \* 신원리

덕리(德里)는 장영한(張永翰)이라는 선비가 약300년전에 마을을 개척했으며 서당마을과 두 자연부락으로 되어있다. 1914년 행정구역변경시 신덕이라 개칭한다. 새터는 옛날은 동리가 있었던 흔적이 있으나 지금은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서당촌(書堂村)은 옛날에는 마을이 번창하여 書堂이 있었으며 지금은 사일초등학교가 있다. 성리(城里)는 약 150여년전에 한후영(韓厚榮)이라는 선비가 신덕(新德)이라 개칭하였고, 학리(鶴里)는 땅모양이 학모양이며 날개부분에 집을 지으면 지탱치 못한다하여 등부분에 집이 있다. 꼬리 부분에 2개의 바위가 있는데 학구(鶴邱)라 전한다.신촌(新村)은 고려시대에 앞산 밑에 고정사(高亭寺)라는 절이 있었다고하여 고정골(高亭谷)이라 했으며 약 300여년전 숙종때 김성응(金聲應)이라는 선비가 피난와 바로 지금의 신촌에 정착했다 한다. 학산은 옛날에 이 마을 앞산에 학이 많이 살았다고 전해오고 있다. 학이 마을에 많이 오면 마을은 자연히 길한 일이 많다하여 풍년이 들고 학처럼 마을 사람들이 장수하게 된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이 곳이름을 학산(鶴山)이라 했다한다. 신촌(新村)과 학산(鶴山)이 합한 리이다.

#### \* 애련리

봉계는 약 300여년전에 崔齊學이라는 선비가 개척하였으며 이곳에서 북으로 약 1km 지점에 봉루암(鳳樓庵) 암자가 있었기에 봉계(鳳溪)라 했다하며, 천골(泉谷)은 마을 앞 약 500m지점에 샘이 하나 있는데 칠년 대한(大旱)에도 마르지 않는다 하며, 죽골(竹谷) 또는 죽계(竹溪)는 대나무숲을 베고 마을을 개척했다 하며, 이곳에서 난 사내아이는 절개가 대와 같다 한다. 삼괴(三槐)는 매화나무가 3本있었으나 지금은 1本만 남아 있으며 울정(栗亭)은 굵은 밤알이 난다고 전하며, 재애동 또는 와골(瓦谷)은 단양 전씨(丹陽 全氏)가 살고 있었으며 기와굽는 굴이 있었다고 전한다. 삼괴(三槐), 죽계(竹溪), 봉계(鳳溪)로 된 마을이다.

#### \* 용천리

용내, 용호, 용천은 1592년 임진왜란시 조정헌이란 선비가 개척했으며, 이 마을에서 용이 한마리 승천하였다고 하며, 부용(夫龍)은 1598년경 최명해라는 사람의 씨족(氏族) 3집이 농사를 크게 지으면서 살았는데 이들은 용 가운데서 지아비용(夫龍)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전한다.

#### \* 우천리

구신기는 와우형(臥牛形)의 산밑에 이 마을이 자리잡고 있다는 데에서 유래된 이름이며, 원래 이 마을이 있었는데 주민이 모두 나가고 폐동(廢洞)되었다가 다시 이 곳에 들어와 살았는 데서 구신기라 부르기도 한다. 또는 옛날에 이 곳에 담양 전씨(潭陽 全氏)들의 선계사족계자(鮮溪詞即溪字)는 "川"을 가운데 넣고 앞산의 모습이 와우형(臥牛形)이라 우자(牛字)를 합해서 우천(牛川)이라 했다 한다. 우리 말로는 "소내"이다. 소내는 어부(魚浮), 하우(下牛), 월평(月坪), 상평(上坪), 용연리(龍淵里)의 일부가 합하여 된 마을이며, 1914년 행정구역개편시 영천군 청통면에 속하게 되었다.

#### \* 원촌리

구신기는 와우형(臥牛形)의 산밑에 이 마을이 자리잡고 있다는 데에서 유래된 이름이며, 원래 이

마을이 있었는데 주민이 모두 나가고 폐동(廢洞)되었다가 다시 이 곳에 들어와 살았는데 구신기라 부르기도 한다. 또는 옛날에 이 곳에 담양 전씨(潭陽 全氏)들의 선계사즉계자(薛溪詞卽溪字)는 "川"을 가운데 넣고 앞산의 모습이 와우형(臥牛形)이라 우자(牛字)를 합해서 우천(牛川)이라 했다 한다. 우리 말로는 "소내"이다. 소내는 어부(魚浮), 하우(下牛), 월평(月坪), 상평(上坪), 용연리(龍淵里)의 일부가 합하여 된 마을이며, 1914년 행정구역개편시 영천군 청통면에 속하게 되었다. 원촌(院村)은 이름은 송곡서원(松谷書院)이 있었기에 생긴이름이다. 태재 류방선(泰齋 柳方善)선생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선생은 집현전 학사로 임명되어 세종대왕과 서로 질의로서 왕복하고 스승의 예우로서 대우하게 되니 선비의 영예스러운 일이었다. 사계(四桂)같은 문학의 영수와, 단종때 세조의 왕위찬탈을 반대하다가 금성대군과 함께 처형당하여 순절하신 대전 이보흠 같은 분을 문하생으로 두고 있었다. 1702년에 폐비를 봉안하고 제향을 올리다가 대원군께 휘철되고 광복17년 애련리로 복원하였다. 회룡(回龍) 또는 창리(倉里)는 500여년전에 강옥진이라는 선비가 개척하였다 하며 개척 당시 강의 줄기가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모양이기에 회룡(回龍)이라 했으며, 창리(倉里)란 이름은 조선시대에 곳곳에 곡물 창고가 있었는데 이 곳에 창고가 있었다고 전해오며, 이설로서는 임진왜란(1592)에 최용준이라는 분의 집 뒤에 병기고가 있었다고 전한다.

#### \* 치일리

지곡은 청주 한씨(淸州 韓氏)의 선조가 약 300여년전에 이 마을을 개척하였으며 당시 잔디 언덕을 개간하여 밭을 일구었다한다. 부흥리는 약 150여년전에 차영수(車永守)라는 선비가 개척했다 한다. 부흥리(夫興里), 지곡리(智谷里), 학곡리(鶴谷里)가 합하여 치일리가 되었다.

#### \* 호당리

호령은 약 500여년전에 전유형(全有亨)이라는 선비가 마을을 개척했으며 뒷산의 모습이 범모양이기에 호령(虎嶺)이라 했으며 이후 150여년전에 김영곤(金永坤)이라는 선비가 호당(虎堂)이라고 개명했다 한다. 신당(新堂)은 김정수(金丁洙)라는 선비가 개척했으며, 배병래(輩兵來)는 조선시대 한양으로 가는 선비나 병사들이 쉬어가는 집이 있다 하여 배병래라 했다한다.



## □ 신녕면

### \*가천리

가산골, 가시골은 약 200여년전에 도구동(都九東)이라는 선비가 개척했으며 마을 뒤 야산이 아름답고 모래가 많았다하여 지은 이름이라 하며, 또 마을의 산모양이 마치 가사(袞娑)를 등에 걸고 있는 형상이라 하여 지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새터는 명천(鳴泉)이라고도 하며 이원홍(李元紅)이라는 선비가 200여년전 개척했다 한다. 작은 가사골은 약 200여년전에 김주원이라는 선비가 개척했다. 큰 가사골은 약210여년전 정구본(都九本)이란 선비가 개척당시에 모래가 많았고 마을 뒤 야산이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어 가사(佳沙)골이라 칭하고 있다하여 1914년 이근복(李根福)이라는 선비가 가사골 "佳"자와 명천 "泉"자를 따서 이 마을 이름을 가천이라 개칭하였다고 한다.

### \*매양리

매양리는 별삼(別三), 별사(別四), 별오(別五), 어일(於逸), 별십일(別十一)의 일부와 別二의 일부가 모여서 된 마을이다. 1914년 행정구역 변경시 이와 같이 칭하게 되었다. 별관(別館) : 왕산리(旺山里)의 일부와 매양리(梅陽里) 일부를 합하여 부르는 이름이며 약1300년전 밀양 박씨가 1리 부근에, 또 경주 김씨가 왕산 2리 부근에 각각 마을을 이루었다 한다. 또 조선시대에는 근처에 장수역(長水驛)이 있었다. 慶尙左道의 동쪽 큰길에는 큰 역이 있었다. 보도말거리 : 옛날 들의 곡식을 지키던 막(幕)이 있었으며 그 주위를 통틀어 보도말거리라 했으며 약 40여년 전까지도 막이 있었다. 서마실, 섬마실 : 양변에 강이 있었기에 지은 이름이며 사동(四洞)은 별관안에서 서쪽으로 위치한 마을로서 아주 옛날에 경주 김씨가 개척했다 하며 별관은 당시 別一里에서 別五里사이 넷째이기에 불린 이름이며 여름, 어리골, 어일은 別四里 서쪽에 있는 마을로 산의 골짜기가 깊고 길어 피난에 좋은 곳이기에 칭하게 되었다.

### \*부산리

지금부터 약 70년전까지만 하여도 부산에서 서울로 통하는 길목이었다. 역과 역 사이를 공용으로 여행하는 관원들의 여관인 원(院)이 있었고 산의 남쪽에 있는 원(院)집이라하여 남원(南院)이라고 하였다. 300여년전 청송에서 함안 조씨들이 이주해 왔다. 배골(梨洞) : 약 300여년전에 청주 고씨가 개척한 마을이며 당시에는 배나무가 많았다 한다. 새터(新基) : 약 400여년전 달성 배씨가 새로 개척했다 한다. 경주 김씨가 주성을 이루며 약 60여 가구가 산다. 새뜸은 1930년대의 대홍수로 인하여 주막거리와 사기점이 유실되어 그 곳으로 이주하여 개척한 마을이다. 핏골 : 남원리 동남방 부흥산 뒤편 골짜기인데 약400여년전 경주 이씨가 개척하였다고 전한다. 임진시에는 피난지이고 부흥산이 있기에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부산리라 했다 한다.

### \*연정리

두야(豆也) : 신양 소척(新陽 小斥)으로 된 마을으로서 약 470년전에 윤준(尹俊)이라는 마을의 선비가 개척했다고 하며 콩이 잘 되고 지형이 "也"자 모양이라서 두야골(豆也谷)이라고 했다한다. 아랫깁변 : 신기(新基)는 윤상호라는 선비가 1875년에 개척했다 한다, 옷바렌내 : 아랫바린내 위쪽에 위치한 마을로서 물이 바르게 내려간다는 뜻에서 생긴 이름이라 한다. 참나무장이 아래실 : 아랫마을은 참나무, 亭子木이 있었다 한다. 지금은 20평 정도의 느티나무 숲이 있다. 윗마을 단실의 북쪽에 있다.

### \*완전리

화암 잔부(火岩 殘部)와 下一, 下二, 下三이 합해서 된 마을이며 하관(下官)이라 한다. 신라시대 월성 손씨(月城 孫氏)가 마을을 개척하였다고 구전되나 시대는 훨씬 후인것 같다. 통행인들을 보호, 지도, 검문등을 했으며 현의 관용창고가 있었다. 낮은 벼슬아치들이 주거 했기에 下官이라 한다. 구디터, 군인터, 구둔터는 조선초기 군인들이 있었다 하여 군인터라 전하기도 하며 또는 9마리의 돼지가 죽을 먹는 형상이기에 구둔(九豚)터라고 한다. 마을 앞에 왕골밭이 많다고 하여 완전(莞田)이라 한다.

### \*왕산리

별관(別館)이라고도 한다.약200년전에 왕산(旺山)으로 개편했으며 전설에 산이 날아와 앉았다하여 왕산이라 하게 되었다 한다. 화성리에는 고을 수령이 주재하는 관청의 본관이 있고 현재 왕산리에는 하급관리 및 역졸들이 묵는 집이 있어 불려진 이름이라 한다. 만전(萬田)은 뒷산에 철이 많이 난다고 하며 은점(銀店)은 은광이 있었던 곳이고, 주막거리는 옛날에 시장이 있었던 곳이며 부산서 서울로 가는 길목이다. 주막거리를 대장간, 성기장(눅그릇 만드는곳)골목이라 한다.

### \*치산리

지금부터 약300년전 "김한윤"이라는 선비가 개척하여 신암(新岩)이라 하였다가 그 후 70년후에 치산(雉山)이라고 개칭하였다 한다. 마을 입구 앞산에 평이 옆드려 있는 모양으로 되었기에 이런 이름이 생겼다한다. 신지냄이, 신암은 신선한 바위가 많기에 붙인 이름이며 진곡(晉谷)은 골 중앙에 위치 하였기에 생긴 이름이며 개척당시 부터 계곡(溪谷)이 긴 산중턱에 마을이 생겼다. 中里는 마을 중심지이고 양지는 동쪽을 보고 양지 바른곳에 자리잡고 있다하여 생긴 이름이며 구천(龜川)이란 예부터 개울에 자라가 많기에 생긴 이름이다. 동지(東池)는 약 300여년전에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개척했으며 동쪽에 못이 있다. 구천은 내포라고도 하며 약 350년 前 안동 권씨(安東 權氏)가 살았으나 지금은 모두 갑현(甲峴)으로 이주했다 한다.

### \*화남리

갑티(甲峴里) : 330여년전 안동 권씨(安東 權氏)들이 귀천(龜川)인 치산(雉山)서 이곳으로 이주해 왔다한다. 지금도 자손이 살고있다. 두들(頭野里) : 약 100년전에 갑현(甲峴)사람들이 이주해 와 농사를 지었으며 지금도 살아 오고 있으나 중앙선 철도와 영천-의성간 도로가 마을 중앙을 통과 하고 있으니 지금은 세가구만 남았다. 딸골(地谷) : 온천리 부근에 서쪽으로 4km떨어진 마을이다. 임란때 義城 金氏, 武安朴氏등이 피난와서 살던 곳이다. 지금은 거의 폐동(廢洞)단계에 있다. 면천(勉川) : 400여년전 경주 손씨가 개척했다 하며 냇물이 마을 앞을 지나다가 굽이쳐 흐른다. 마을 위에 남지(南池)가 있다. 무덤실(武岩) : 300여년전 청주한씨(淸州 韓氏)가 개척한 마을이며 고려장이 4곳이나 있다. 불당골(佛堂) : 古刹이 있었다. 고려말 폐사(廢寺)되었으며 조선말 의병들의 집합지였으므로 日軍들이 폐동을 시켜 버렸다. 광복후 10여 가구가 살고 있다. 온내골 : 의성 김씨(義城 金氏)가 개척하여 안동 권씨(安東 權氏)가 300여년간 살고 있다. 아랫동 : 무암(武岩)아래에 있으며 광복전 과원개발(菓園開發)로 인하여 소재지 사람들이 이주해 살고 있다.

### \*화서리

화정(花亭), 도근(道斤) 그리고 군위군 산성면 범박리 일부와 반내리(反內里)일부가 합하여 된 마을이다. 도근(道斤) : 임진왜란 당시에 성주 이씨들이 난을 피하기 위해 들어온 마을이라 한다. 화정(華亭) : 400여년전 이형곤이라는 선비가 지금의 마을보다 북쪽인 현 화곡지(花谷池)밑에 살기 시작하였으며 임란시 인동장씨들이 북쪽 골짜기로 들어가 난을 피한 후 현재의 마을로 내려

와 경주 이씨들과 같이 개척했다 한다. 진달래가 많기에 화정(花亭)이라 했다가 화산(華山)의 서쪽에 위치하기에 화서리라 했다한다.

#### **\* 화성리**

관기리(官基里), 관근리(管近里) : 고을 원님이 집무한 곳이며 현의 심장부이다. 800여년전 월성 이씨가 개척했다한다. 교리(조동이라고 함) : 관기리의 북쪽이다. 향교가 있기에 지은 이름이다. 본관(本官) : 화성 전체를 칭하는 이름 성저리(城底里) : 마을뒤 산줄기에 성이 있고 그 성 아래 자리잡은 마을이며 지금도 성터가 보인다. 점막리(店幕里) : 3, 4동 일부와 시장 일대 점포가 많았다. 류정리(柳亭里) : 경주 김씨가 개척했다 한다. 사천변(沙川邊)에 수양버드나무가 많다. 관기, 교리, 성저, 화암일부와 류정(柳亭)으로 되었다.

## □ 화산면

### \*가상리

약 500여년전에 구의현(九宜軒) 권열선생이 안동에서 처음으로 入鄕하여 정착하셨으며 당시부터 추자(楸子) 나무의 숲이 무성하였기에 가래실이라고 하였고 독조골(獨造谷)은 옛날 홀어머니가 이곳에서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하며, 새애모래와 모산 모두 가래실 아래에 있는 마을로서 예부터 사람들이 정착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 \*당곡리

당곡, 갱빈마, 당외, 움조골, 저거너마를 합하여 당곡리(堂谷里)라 하며 약 500여년전부터 사람이 정착하여 농경(農耕)해 왔으며 조선조때에는 신녕현 질림면의 지역인데 1914년 부군 통폐합시 신녕현은 영천군에 속하게 되고 당외리와 곡산리를 병합하여 새로 화산면에 편입하게 되었다.

### \*당지리

이 마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500여년전부터라고 생각된다. 범의 안내를 받아 귀한 약을 구해 부모의 병을 치료한 공으로 나라에서 내린 월성 이씨의 효자각이 있으며 부주골은 배가 떠있는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고 화지골은 창을 만든 풀무가 있었으며 더욱이 임란때는 그의 역할이 대단했다. 지금도 불무골 또는 불매골이라고도 한다. 섭제골은 섭제사(攝提寺)라는 절이 있었다고 전하며 예부터 사람이 정착하여 살았다고 한다. 또 임란때에는 쇄으로 성을 쌓아 무사히 피난했다고도 한다.

### \*대기리

선돌배기 선도리(立石)는 큰 마을 동쪽에 선돌(立石)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며 현재도 10여가구가 살고 있다. 아랫가래실-하신기(下新基)-는 대기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현재 안동 권씨 40여호가 집단으로 거주하고있다. 대동리는 임진왜란때 우리의 의병들이 많이 주둔했다고 전해오고 있으며 영천신녕간의 국도변에서 약 1km쯤 떨어진 곳이다. 마을에 立石이 있을 정도이고 큰 강과 넓은 들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기에 고대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덕암리

1680년 김해 김씨가 이 마을을 개척하고 마을 앞 냇가에 정착하여 살던 중 동네 어귀의 큰 바위가 있어 지성을 다하여 빌면 덕을 본다하여 덕암(德岩)이라 불렀다

### \*부계리

울뱅이는 신라시대에 우계사(牛溪寺)라는 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마을이 그 아래에 생겼다. 남서쪽에 대장골(大長谷)이 있고 옛날에 집터였던 대철배미라는 논이 동쪽에 있으며 부자산, 울방못, 울방들이 있다. 아주 옛날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이 서쪽에 유병사묘(劉兵事墓)가 있다. 제부골(諸富谷)은 지형이 제비집 모양이고 이마을에 새로 이사를 오는 사람은 다 부자가 된다고 하여 제부골이라 부르며 서북쪽은 삼밭골이라는 골이 있고 남동쪽에는 회화나무가 있다.

### \*삼부리

토지가 비옥하고 큰 평야에서 약간 외진 곳이라서 예부터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다. 가암못

안이 큰 마을로서 500여년전부터 사람이 정착했다고 생각되며 병마(兵馬)에게 물을 먹이던 곳이라고 전한다. 병마(兵馬)는 임란시 우리 의병들이 위군 격전하던 곳이라 하며, 삼거리는 조선시대 때 청송, 포항, 경주 상인들이 쉬어가는 세 갈래 길이며 하양으로, 경주, 안동으로 가는 길목이다. 마을 형성은 800여년전으로 추정된다.

#### \* 석촌리

석촌(石村)은 본래 영천군 질림면(迭林面)의 지역으로 바위가 있기에 이름이 생겼으며 조선 인조 때 경주 김씨 형제가 화북 자천리로 부터 이주해와 형의 호는 "석정(石亭)"동생의 호는 "계정(溪亭)"이라 하였다. 이름 첫 字자를 따서 석계정(石溪亭)이라 부르다가 석촌이 되었다.(1914년) 와룡(臥龍)은 석촌 남쪽 1.5km지점에 있는 마을로서 용이 누운 모양의 뒷산을 간직한다 해서 생긴 이름으로 10가구가 살고 있다.

#### \* 암거리

상신기는 지금부터 약400여 년전에 마을이 형성되었고 지금 마을은 상신기 서쪽에 있으며 들에 큰 돌이 2개 있었는데 1개는 일제시대때 사방공사를 하느라 부숴 버렸으며 입암(立岩)은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같은 바위가 두개 우뚝 기둥같이 서 있다. 납세미는 마을 가운데 샘이 있었는데 밤이면 납(원숭이)이 물을 먹으러 내려와서 사람들이 이 샘을 메워버렸다 한다.

#### \* 연계리

신녕현의 아촌면(阿村面) 울전(栗田), 굴견(屈見), 월계, 덕산(德山) 일부, 영천군 북습면(北習面) 용호일부와 덕양 용강의 각 일부가 합해서 된 마을이다. 가일(佳日)은 약 200여년전 나주 정씨(羅州 丁氏)가 마을을 형성했다 하며, 굴견(屈見)은 중심되는 마을로 위에 굴이 있는데 장군이 나와 말을 타고 하늘로 갔다는 뜻에서 생긴 이름이라고 전하며, 울전(栗田)은 300여년전에 생겼고, 연못안은 조선조 영양 김씨(英陽 金氏)가 入居하여 개척한 마을이다.

#### \* 용평리

민덕은 예부터 사람들이 정착하여 생활해 왔으며 앞에는 민덕들, 남쪽에는 더미골 서쪽에는 민덕보가 있다. 하나골은 민덕 동쪽에 있는 마을로 골이 하나뿐이라서 붙인 이름이며, 질림주막(迭林酒幕) 또는 예림주막(藝林酒幕)은 민덕서쪽에 있는 마을로 1799년 영천군 질림면(迭林面) 소재지로서 옛날 서울로 통하는 길이 있는데 이곳에서 사람들이 쉬어가는 주막이 있었다 한다.

#### \* 유성리

넓은 평야와 넓은 구릉의 기슭에 있어 인간의 정착은 옛날이라 추측된다. 류정(柳亭)은 버드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 그 아래가 정자와 같은 역할을 해 주어서 선비들이 그 밑에서 글을 지어 놓았다고 전해오며, 朔室은 구성(九星), 구리(九里)라고 하며 삭일(朔日)에 별 9개가 전 동네를 비추어 주었다 하여 이름을 지었으며, 옛골 뒷골 앞골은 가일에서 괴질병 때문에 왼쪽고을로 이주하여 왔다하며 또 기와 굽던 굴이 있었다고도 한다. 역전부락은 남쪽에 있는 마을로 1930년대에 신작로와 역산역이 생긴 후에 갑자기 크게 번창하게되었다. 못 밑은 어상지(於相池)의 밑에 있는 마을 이름이며 갯바마을은 신녕강변에 있고 유명한 청석보(靑石湫)가 있으며, 관사는 일제말엽에 중앙선 화산역에 근무하는 역원들의 집을 지었다고 해서 이름을 붙였으며, 원앞은 옛날 큰집, 즉 면사무소와 화산초등학교가 있었던 앞에 형성된 마을이라 해서 불려졌다. 지금은 이 두 큰집이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 졌다. 성동굴은 임진왜란때 이 곳에 성을 쌓고 왜군과 대항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화산리

효지미(孝旨尾)는 약 500여년전 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며 처음은 곽씨가 살다가 세조 왕위 찬탈시 피신한 정간공 양곡 양효지(良谷 楊孝智)가 살았던 곳이며 원래 신병현 대량(代良)동에 속했고 옷나무지(漆谷)는 화촌(花村)에서 동쪽으로 약 1km떨어진 곳에 있다. 살구정이 남쪽에 있으며 살구나무가 많았다고 전하고 곽산(郭山)은 곽씨가 8형제의 아들을 거느리고 살았으며, 화촌(花村)은 지금부터 약 300여년전 월성 이씨, 월성 김씨, 함안 조씨등이 살았으며, 지금은 이씨, 추씨, 김씨가 살고 있다.

### \* 효정리

괴정리(槐亭里)는 지금부터 약 500여년전 조선조 세종 당시 삼도(三道) 관찰사를 역임한 정몽길(丁夢吉)선생이 入郷하여 세운 마을이며 선생의 유허비와 활천정(活川亭)이 있고 또 마을을 상징하는 괴목들이 많이있다. 효자문은 정몽길 선생의 후손인 정응거(丁應居)장군의 형이 임진왜란때 부모를 위해 단신으로 왜군과 싸워 순사했으며 그의 처 오천정씨는 왜군에 붙잡혀가다가 말 위에서 자결하니 이들 부부의 효와 열(烈)을 높이 찬양하여 마을 앞에 효열정각(孝烈旌閣)이 세워졌다. 이로써 효자문이라 칭하게 되었다. 서당골(書堂谷)은 서당이 있는 곳이며 샘골은 천지개벽때 산꼭대기가 마치 쇠머리모양으로 생긴 노고산(路姑山)이 모두 물에 잠겼다고 전해오며 또 산아래에는 장군수라는 화수(華水)마저 흐르고있다. 갯마야는 효자문에서 남쪽으로 약900m의 위치에 있는마을이며 郭山은 제실이 있는 곳이기에 이름이붙여졌다. 500여년간 자손들이 살고있는 마을이다.

## □ 화북면

### \*공덕리

고려말엽에 성명미상의 스님이 현탑골(現塔谷)에 불교를 전수하기 위해 공덕사란 절을 짓고 살기 시작했으며 그 후 절은 없어지고 공덕사(公德寺)의 절이름을 따서 공덕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일제때 한때는 천상리(川上里)라 불렀던 적도 있으며 대왕사(大旺寺)절이 있었다고 해서 대왕(大旺) 또는 당대이라고 하는 자연부락이 있다. 또 탑(塔)이 있는 계곡이라하여 탑곡이란 자연부락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 \*법화리

신라말기 54대 경명왕때(920년경)에 한 스님이 절을 짓고 입산 수도하고자 이 마을에 정착하여 불법을 편다는 뜻으로 마을이름을 법화라 칭하게 되었으며 아랫마을을 하법화(下法華), 윗마을을 상법화(上法華)라 불렀다. 지금은 인가(人家)가 없으나 골짜기모양이 소의 뿔과 흡사하다하여 각(角)골이라 불렀으며 얼마전까지도 5세대가 거주 하였으나 전부 이주하고 빈집 또는 흔적만 남아 있다.

### \*상송리

약 400여년전에 정씨(鄭氏)와 추씨(秋氏)가 피난차 이곳을 지나다가 이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확실치 않으며 김해 김씨가 정착하여 마을을 개척하였다는 설이 있다. 또한 마을북판에 지당(池塘)이 있어 이 지당을 중심으로하여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다하여 지당걸이라고 하며 신촌지구의 중심지로 시장이 있었는데 저잣거리라고도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주위 산에 소나무가 많다고하여 상송이라 부르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오동리

약 500여년전 조선 중종때 안우곤(安遇坤)이란 선비가 마을을 개척했으며 봉황산 밑에 자리잡았다고 하여 봉화리라 칭하였다 한다. 철종때 행정구역이 신녕현에 속했다하여 신녕땅, 영천군에 속했다 하여 영천땅이라고 불리어 지고 있으며 지금도 오동이 지번상으로 봉하리로, 신녕땅은 오산지번으로, 영천땅과 강변마을은 오리지번을 쓰고 있다. 또한 마을이름이 오동으로 되어있어 오동나무와 같이 속이 비어야 된다는 전설에 따라 지금도 마을 북판을 비워두고 있다하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오동으로 통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오산리

월지(月旨) : 약 500여년전에 황씨와 범씨(范氏)가 마을을 개척하였다하며 농사를 짓기 위해 못을 막아 범지(范池)라 부르고 있고 월지는 마을 앞산 모양이 반월(半月) 같이 생겨 월지(月旨)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운산(雲山) : 월성 이씨 이왕삼(李王三)선비가 화동면 생천리에서 이 곳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며 앞 뒷산이 높이 솟아 구름이 걸려 있다하여 운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옥계리

약 600년전에 경주 최씨가 피난차 왔다가 느리리(琴溪)에서 살았다고 하며 한때는 100여가구가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은 느리리에 20가구 정도만 살고 있고, 본마을인 비집걸은 영월엄씨(寧越嚴氏)가 약 300년전에 개척했다는 새마을등 3개 자연부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마을앞에

흐르는 내가 연희석의 구슬같이 둥근 바위로 형성되어 흐른다하여 옥계(玉溪)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 용소리

최덕(崔德)이란 사람이 마을을 개척하였으며 마을앞 못에 부들이 많다고하여 부들밭이라 하였고 일제때는 상인평(上茵坪), 하인평(下茵坪)이라 하다가 못에서 용이 등천했다는 전설에 따라 용소리로 개칭하게 되었다. 이 마을은 3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상용소, 하용소 외에 섬마을이 있다. 이 섬 마을은 약 200년전에 마을 양쪽에 못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섬같이 생겼다고하여 섬마 또는 섬마을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 입석리

옛날 김덕립(金德立)이란 선비가 처음 마을을 개설하여 뒷산 이름을 따서 보현리라 부르다가 동리 입구에 큰 바위가 서 있다하여 "선돌"이라 하였으며 한자의 음을 따서 입석(立石)이라 칭하게 되었다. 또한 이 마을은 3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옛날 포항과 신령을 연결하는 통로로 이용되었고 배나무가 많다고 하여 배나무정이란 마을이 있고 바로 보현산밑에 자리해서 골이 깊다고 하여 짙은김이라고 칭하는 마을이 있다.

#### \* 자천리

옛날에는 보현산을 모자산(母子山) 또는 자모산(慈母山)이라고 하였으며 마을앞을 흐르는 내(川)가 을자형(乙字型)으로 흐른다하여 "자을천(慈乙川)" 또는 "잘라" 라고 부르다가 "乙"자가 빠지게 되고 지금은 "慈川"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자천 1리는 지금의 혼골(混谷)에 약 400년전에 형성되었고 서부리(西部里)라 일컬어져 왔으며 자천 2리는 약 400여년전에 고수곡에 여씨(呂氏)가 처음 개척하였다하며 그뒤 오천정씨가 개척하여 고수동이라 부르다가 서부리의 동쪽에 위치했다하여 동부리라 불려왔다. 자천 3리는 마을 뒤편으로 하천이 흘러 마을의 하천 가운데에 있다 하여 중계리(中溪里)라 불렀으며 약 400여년전에 청주 양씨(淸州楊氏)가 마을을 개척했다고 하나 확실치 않으며 1914년 행정구역 일제개편시 지금의 자천1, 2, 3리로 개편되었다.

#### \* 하송리

이 마을은 약 450여년전에 강씨가 정착하면서 비옥한 토지에 국화(菊花)가 만발하여 그 향기가 인근에 퍼지게 되어 마을 이름을 국실(菊室), 국골(菊谷)이라 칭하게 되었으며, 도로변에 있는 마을을 외국실(外菊室) 또는 거리국실이라 하고 1km안에 있는 마을을 내국실 또는 안국실이라 한다. 이곳은 조선말기까지 신녕현 신촌면 소재지가 있었다고 하며 마을산에 솔(松)이 많아 그아래 있다하여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하송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 횡계리

1664년경 김해 허씨가 처음 정착하여 도화리(桃花里)라 부르다가 1701년경 오천 정씨인 만양(萬陽), 규양(葵陽) 형제가 이곳으로 정착하여 마을 한 가운데를 동서로 내(川)가 가로질러 흐른다하여 횡계리(橫溪里)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 화남면

### \*구전리

조선 단종때 세조대왕에게 살해당한 지봉 황보 인 의 후손들이 피난하여 이 산중 골짜기에 정착 하게 되었으니 약 500여년전 부터 정착했었다고 추정된다. 그 후 높은 산의 나무와 흙과 돌로 집을 짓고 땅을 파 우물을 만들며 들의 풀과 나무를 벌목 하여 높은 곳은 밭으로 낮은 곳은 논 을 만들어 농사를 지었으며 소를 먹여 경작 하고 닭을 길렀으며, 서당을 지어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학문의 기틀을 만들어 앞서 가는 마을을 형성하였으니, 예부터 별곡 황보씨(別谷 皇甫氏) 라고 인근에서 추앙을 받던 마을이다.

### \*귀호리

마을 입구에 가로 세로의 큰돌이 밭에 있는데 마치 거북이 모양이라하여 구일(龜逸)이라고 하며 바위를 구암이라 한다. 아래에 오천천(五泉川)이 흐르며 원래 단양 우씨(丹陽 禹氏)가 개척했다고 전한다. 창녕 조씨가 그 후 살면서 구일(龜日)이라고 했다 한다. 우목골(牛牧谷)은 귀애 조극승(龜厓 曹克承)선생의 귀애정이 있다. 새뭇터는 창녕 조씨 증시조이신 이조참판 임계(林溪) 조경은 (1548-1592)선생을 모신 회계서원(晦溪書院) 동서재 인근에 생긴 마을이다. 평지마(平地)가 있으며, 안귀일은 약 500년 가까이 추계 추씨(秋溪 秋氏)가 개척하여 살아온 마을이다. 다라골(多羅谷)은 500년전 청주 양씨가 개척한 마을이다. 고부터(古阜基)는 제주 고씨가 처음 집을 지었다고 전한다.

### \*금호리

금호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 중리(中里)이다. 이 마을은 약 400년전에 안동 권씨와 창녕 조씨가 들 가운데 거주하였기에 중리라 했으며, 복성(復城)한 권응수(權應銖)장군이 의병을 모아 말을 달 리면서 훈련을 시켰다 해서 근처의 삼변(三邊)을 구마강변(驅馬江邊)이라 칭하고 있다. 내지(內旨) 는 앞에 있는 내(川)가 감돌아 마을이 안전하게 보존된다는 뜻에서 생긴 이름인 듯 싶으며, 질구 지는 옛날부터 천연자원인 점토를 이용하여 질구릇을 구워내게 되므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지금 도 도기를 구워내는 옹기굴이 2개 있다.

### \*대천리

강당(講堂)은 월성 이씨가 정착하여 조선 중엽에 학천서당(鶴川書堂)을 건립하여 지방 아이들을 가르쳤으며, 대리(大里)는 정광성(丁光成)이란 선비가 약 400여년전에 처음 개척하여 생천(生川)이 라 해오다가 정씨(丁氏) 조상이 중국 대천(大川)서 왔기에 대리(大里)라고 했다. 나주 정씨의 世居 地이고, 생천은 한나라 했으며 지금부터 약 400여년전 성송국(成松國)이라는 선비가 처음 정착하 였다. 앞내의 물이 맑고 차가웠기에 생천(生川)이라 칭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리(大里)의 "大"자와 생천의 "川"을 따서 "大川里"라 칭하게 되었으며 생천(生川)은 창녕 성씨의 世居 地이다.

### \*사천리

사라골(沙羅谷) 또는 효자문(孝子門)이라고 하며 처음 이 곳에 정착한 분은 약 400여년전 오천 정씨 차순(次淳)이라는 분과 양산 이씨 득정(得禎), 득록(得祿)이라는 형제, 그리고 밀양 박씨가 이 곳에 정착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한다. 마을 앞에 금빛나는 고운 모래가 많이 있기에 사라골 (沙羅谷)이라고 칭하여 왔으며 정의 정잠(鄭岑) 형제는 효성이 지극하였기에 효자문이라 한다. 현

재는 양산 이씨가 주를 이루며 살아오고 있는 곳이다. 안노방, 늘노방, 상노방은 백연(白淵)이라는 선비가 약400여년전에 이 곳을 처음 개척하여 마을을 형성했다. 얼마 후 김치해(金致海)라는 분이 노방(老方)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전한다.

#### \*삼창리

현고(賢臯)는 조선 영조때의 조사언(曹士彦)이라는 학자가 정착한 후 그 자손이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고현장터는 조선시대 부터 신령현 동면소재지였으며 사람들의 왕래와 각종 물품들의 거래가 잘 되는 곳이기에 장터가 생겼고 "한마"는 원래 큰 마을이 있었으며 "진동골"은 골짜기의 입구라는 뜻이며, 한천(漢川)은 조선 중종때 김응시(金應時)라는 분이 자양면 노항에서 이곳으로 옮겨와 처음 살게 되었으며 당시에는 한골(漢谷)이라 했으나 마을 앞에 내(川)가 있기에 한천(漢川)이라 했다.

#### \*신호리

대내실, 다내실은 임진왜란때 김순부(金順富)의 처 현풍 곽씨(玄風郭氏)가 두 아들을 데리고 이곳에 피난와서 마을을 개척했다 한다. "사라들"은 들에 쌀생산이 많으며 또 들이 금빛나는 모래흙으로 되어 있어 예부터 인류가 정착했다한다. 야수골은 야수골(也水谷) 또는 신흥(新興)이라고 하며, 최헌(崔憲)이란 선비가 약 400여년전에 이 곳을 처음 개척했다 한다. 그 후 약 240여년전 이씨가 이 마을을 다시 이루었기에 신흥이라 칭하게 되었다 한다.

#### \*안천리

능계(陵溪)는 능산(陵山)으로 부터 흐르는 계곡이라는 뜻에서 지명이 생겼고 또 이산에 임금님이 아들의 태(胎)를 묻었다 하여 태봉산(胎峯山)이라고도 부르는데 산꼭대기에 지금도 적석총(積石塚)의 흔적이 보인다. 인류가 본격적으로 정착하여 살기에는 지금부터 약 400-500여년전 이라고 추측된다. "중터" 라는 곳에 가보면 옛날에 사찰이 있었던 흔적을 볼 수 있으며, 기와 조각, 깨어진 고토기와 파편등이 있다. 서원은 조선 선조대왕때 신녕 현감 황준량(黃俊良)이라는 사람이 현대천리 앞 양각연(羊角淵) 위에 백학서원을 건립하여 지방교육에 힘썼으나, 지역이 좁고 물이 없기에 조선 말기에 이 곳으로 이군하여 서원의 이름을 따서 서원마을이라고 불렀다. 신안은 신라 후손이 400여년전에 능계에 거주 했는데 박시양(朴時亮)이라는 선비가 이곳 신안으로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했고 능계 음양지(陰陽地)는 곧 자연이 일광을 받는 형편에 의거해서 생긴듯하다. 온천 또는 신안천은 겨울이 따뜻하고 지형이 좋아서 300-400여년전부터 인류가 정착한 듯 하다. 또 신녕땅이 안천이라는 뜻에서 신안천이 생겼다.

#### \*온천리

경주 최씨(慶州 崔氏)의 중시조이신 최씨가 처음 정착했다고들 전해 오고 있으니 약 300여년전 부터 거주한듯 하다. 궁근다리 궁교(弓橋)는 조선시대 신녕현의 소재지가 신녕에 있었기에 동면 지대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현에 갈려면 이 지역을 지나야 한다. 이 곳에 활처럼 굽은 다리가 있었다 하여 궁근다리 즉 궁교라 했다 한다. 신온천(新溫川) - 지형적으로 온천은 영천군에 속해 있었는데, 이 곳만은 신녕현에 속해 있었기에 신녕땅의 온천이라는 뜻에서 신온천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용계리

달산(達山), 용계(龍溪), 목리(木里)로 되었다. 만취정(晩翠亭) : 상주목 진주목 진영 개령등의 수령(首領)을 역임한 만취 강종손 선생의 정자. 목리(木里)는 방가산 중턱에 위치하며 매우 아늑하다. 암자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지고 감나무만 무성하다. 통재이는 암석에서 통쇠 즉 구리를 채광했던 곳이며, 현재는 흔적을 볼 수 없다. 파계(巴溪)는 상류계곡에 용이 났다고 하여 지은 이름이다. 이기재는 방가산중턱에 위치한다. 질매재는 논 한 두락의 크기가 너무나 작아서 소의 길마를 놓으면 다 덮어 버린다는 말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 \* 월곡리

논골(論谷), 논실은 월성 박씨가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년전부터 정착해 살고 있었으며, 그 위에 큰 못이 있고 이 못에 몽리(蒙利)를 담당하는 3개 부락이 있다. 못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골짜기라는 뜻에서 논곡이라 했다 한다. 월령은 약 300여년전에 월성 이씨가 임진왜란 후 정착하였다고 전해오고 있으며, 점촌(店村)은 1950년대까지 점토를 이용하여 용기를 구웠으며 현재 농가 5세대가 살고 있다.

#### \* 죽곡리

죽곡(竹谷), 월천(月川), 하죽곡(下竹谷)으로 되었으며 죽곡은 약170여년전 나씨성을 가진 선비가 이 곳을 개척했다 한다. 예부터 대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하며 지금도 땅을 파면 썩은 대나무가 나온다고 한다. 건너골은 약 200년전에 정주선이라는 선비가 처음 개척했다 하며 골짜기라 내를 건너야되는 위치이다. 절골은 약 200년전에 성명미상의 스님이 절을 짓고 불법을 전파하면서 마을이 생기고 사람이 살았다. 그 후 절은 소실되고 마을도 없어지고 이름만 절골로 남아 있다. 윗대내실은 조선조 성종시 黃仲信이라는 선비가 이곳으로 피난와 살았다. 지금도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

## □ 자양면

### \*노항리

1410년경에 김자양(金自養)이라는 선비가 영천도동에서 이곳으로 와 마을을 개척했다 하고 그 후 이 배원이라는 선비가 선산에서 이 곳으로 입향(入鄕)하여 살았으며 정차근(鄭次謹)이라는 선비도 입주했다. 이배원(李培源)의 자인 이의와 김응생과 정윤량 선비등이 함께 구지에 자양서당을 구축하여 사림의 강학소로 하였다 한다. 자양서당은 향내많은 문인을 배출하고 1974년 10월 24일 영천댐 공사로 인하여 수몰됨으로써 지방유형문화재 제78호로 지정 받아 영천군 임고면 삼매리로 이군하였다. 동인각의 바로 옆자리이다.

### \*도일리

상도일(上道日)은 지금부터 약400년전 이곳에 안부자가 살았다. 또 이 마을은 경주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다. 한양으로 가는 손님은 안부자집에서 머물렀다. 중도일(中道日)은 약150년전에 최씨가 개척했다하며 신당은 약 150년전에 남상봉이라는 선비가 개척했다. 이 마을은 조선 말까지 경주군에 속했던 것을 1910년 행정구역 개편시 영천군에 속하게 되었다.

### \*성곡리

회룡(回龍)은 지금부터 약 350년전 이만수라는 선비가 개척하고 뒷산 모양이 마치 꿈틀거리는 용 모양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기룡산 중턱에 성현암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는 사람 10여명을 수용할수 있는 공간을 지닌 큰 굴이 있다. 임진왜란때 조자암선생이 영천향교에 있는 오성((五聖)위패와 임고서원 정몽주선생 영정을 이 곳에 이관, 봉안하고, 또 80세 되는 노모를 봉양했다 하여 후세의 향인들이 성현암(聖賢岩)이라 부르고 있다. 댐 건설후 새로 자양면 소재지가 되어 있다.

### \*신방리

신천, 새뱅이가 있으며 골안은 약 350여년전 김한미(金漢美)라는 선비가 개척하였다고 전하며 부전(畝田)은 강순신(姜舜臣)이라는 선비가 지금부터 약 400여년전에 개척한 마을이며 당시 장고 같이 생긴 밭을 개간하였다하여 장구밭이라 부르며 진주 강씨가 主姓이다. 이 마을에 효자각이 있다. 이 효자각은 강창언(姜昌彦)이라는 선비가 가난하여 평소 부모를 잘 봉양하지 못함을 죄스럽게 여기던 중 부친이 병으로 눕게 되자 평소 좋아하던 물고기를 드리하고자 하였으나 때마침 가뭄으로 냇물이 말라 고기가 없게되자 안타깝게 생각했다. 하루는 눈내리는 날 냇가를 방황하던중 냇가에서 큰 물고기 튀어 나와 이 고기를 부친께 드리니 병이 나았다고 한다. 그후 효자로 칭송을 받게 되고 1945년 후손에 의해 비각이 세워졌다.

### \*용산리

큰마을, 건넛마을, 아린머리, 운태골등이 있으며 본동은 가장 큰 마을로서 큰마을 또 큰마실이라고 한다. 이 곳에서는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났는데 일본인들이 침입하여 산의 맥을 잘랐더니 용이 승천했다고 한다. 건넛마을 : 물건너 있으며 큰마을과 접해 있다.

### \*충효리

일견군평(日見軍坪) 검단(檢丹), 내검(內檢), 하거일부(下巨一部)가 합하여 1914년 읍면 통폐합시 충효리로 하였다. 군드레들은 삼한시대에 가야국 또는 가락국의 군인들이 개척하였다고 하며 또

한편으로는 약 350년전 안대결(安大結)이라는 선비가 이 마을을 개척하였다고도 한다. 또 산남의 진의 의병들이 처음으로 작전을 세운 곳도 여기다. 검단(檢丹)은 약 330여년전에 이신범이란 선비가 이 마을을 개척했다 하며 또 조선 말경 일본 침략이 시작될때에 일본군에 대항하다가 전몰한 산남의진의 장군인 정환직, 정용기 부자의 출생지이기도 하며 정대장부자(鄭大將父子)의 충효를 위해 세운 충효재와 유허비 그리고 부자분의 묘가 있어 충효가 서린 곳이기도 하다. 솔목(率牧) 내검단은 문하복(文夏福)이란 선비가 약 350년전에 개척했으며 뒷산에서 군인의 기마훈련을 한적도 있으며 말을 방목하던 곳이라 하여 솔목(率牧)이라고 한다. 일견(日見)은 약 350년전 이일명(李日明)이란 선비가 개척했으며 꽃피는 마을이란 뜻이기도 한다.

## □ 임고면

### \*고천리

고천리는 지금부터 약600여년전 고려말에 형성되었다고 한다. 고천리의 동쪽 약2km지점에 위치한 고내, 고넛골은 고천리에서 가장 안 골짜기에 있으며 10가구 미만의 각 성이 살고 있다. 그리고 고천리 남서쪽의 고넛골 입구에 위치한 장동, 長才는 골이 기다란 동네이며, 동래 정씨가 많다. 오래 전부터 마을 앞으로 운주산골짜기의 맑은 물이 흘러 고천이라는 지명이 생겼다. 전설에 의하면 어느 해 7월 봉어같이 생긴 작은 산이 운주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별안간 천지가 진동하는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내려 이 산이 홍수에 떠내려와 현재의 고천동에 자리잡았다고 한다. 連脈이 없이 이 산만이 외로이 우뚝 서 있으므로 부래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고천과 장제로 되었다.

### \*금대리

본터가 가장 일찍 생긴 마을이며 현재 20여가구의 의성 김씨들이 살고 있으며 새터(新基)는 본터 남쪽 약 1km 지점에 있다. 월성 이씨, 성주 이씨, 영천 이씨, 오천 정씨등이 살고 있으며 찜대(蒸大)는 뒷산에 은(銀)을 제련하는 은(銀)점이 있었다고 전하며, 삼(大麻)을 찌끗이라 하여 찜대리라 했다한다.

### \*덕연리

확실한 마을 역사는 알 수 없고 뒷마을에는 영천 이씨와 안동 김씨가 주성이고 30가구 정도 살며 아랫마을에는 영천이씨가 주성이고 50가구 정도 살고 있다. 또한 마을에는 큰 늪이 있으므로 덕연(德淵), 또는 덕소(德沼)라고 불렀다. 순수한 우리말로는 듬비이다. 이 웅덩이는 물이 깊어 한 발이 심해도 좀처럼 마르지 않는다. 덕연과 구계가 합해서 된 마을이다.

### \*매호리

맘실, 심곡은 운천 북쪽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로, 마을 골짜기의 길이가 약 4km이며 옆 통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런 지명이 생겼다. 그리고 동산리는 운천 남쪽에 있는 마을로 위치가 동쪽 산 밑에 있어 이런 지명이 생기게 되었다. 우내, 맘실, 동산이 합해서 된 마을이다.

### \*사리

담골은 신라시대에 감영(監營)이 있었다고 전하며 병자호란때 이 마을 주변에 성을 쌓아 그 안에서 피난을 했다고 하여 담골이라고 칭했다 한다. 옛날에는 경주군 북안면에 속했으며 의성 김씨 50여 가구 정도가 살고 있다. 가정(柯亭)은 숙종(肅宗)때 성가정이란 사람이 살면서 불도로써 사람의 병을 치료하여 덕망을 쌓았다고 하여 이름을 따서 가정이라 하였다고 한다. 감나무골은 감나무가 많아 가을이 되면 빨강계 물든 감나무로 둘러 쌓인 마을 모습이 아름다웠다고 한다. 지금은 감나무는 사라지고 한두 그루의 고목만 있을 따름이다. 가정, 사리, 차리, 우봉으로 되어 있다.

### \*삼매리

조선 영조때 형조참의를 지낸 정중기가 개척한 마을로, 풍수지리설로 볼 때 마을 뒷산은 매화 가지가 뻗어있는 형상이고 앞산은 매화꽃을 향하여 날아드는 형상이라 매곡(梅谷)이라 하는데 3개리가 합쳐서 삼매(三梅)라는 지명이 생겼다.

### \*선원리

선원동의 남쪽 자호천 건너편 들판에 정, 김, 이 세 성씨의 세 가구가 동네를 제일 먼저 형성했는데, 자연부락 명칭을 세각단이라 한다. 선원동 마을의 뒷산 언덕이 고리 모양으로 마을을 감고 있다하여 還臯, 또는 大還이라 하는데 영천내에서 살기 좋은 세곳 "慈川, 還臯, 坪湖"중에 속한다.

### \*수성리

터골은 수성리에서 제일 처음 생긴 자연부락이고, 원터(院基)는 예전에 원이 있었던 곳이며, 배이 터는 曲江 裴氏와 月城 李氏가 마을을 형성한 곳이며, 중리는 수성리 전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곳이며 새마, 신마는 약 75년 전에 새로 생긴 마을이다. 수성리에 위치한 운주산은 산세가 험하여 외적들의 방어에도 유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임진왜란때 金柏岩 장군이 병사를 인솔하여 성을 쌓고 진터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守城이라는 지명도 산성을 쌓고 외적을 방어한데서 유래한다.

### \*양평리

마을 동쪽편의 양암(良岩)-돌빼기 부락에 큰 고인돌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을의 역사가 무척 오래된 것임을 알 수가 있고, 예전에는 임고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모여 살았을 것이라 추측된다. 돌빼기의 서쪽에 자리잡고 있는 水平은 거목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마을인데, 마을앞에 운주산의 맑은 물이 흘러 일찍부터 들이 형성되었으므로 수평이라는 지명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된다. 새말(新村)은 돌빼기 북쪽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새마을 동네라 불리다가 고인돌이 있는 양암부락과 운주산의 골짜기 물이 흘러가는 수평 부락을 합쳐 양평(良平)이라 하였다. 임진왜란 이전에 경주김씨와 달선배씨들이 처음으로 정주했다고 한다. 수평, 양암, 신평 일부가 합쳐서 되었다.

### \*양항리

포은 정몽주 임고서원 뒤편에 포은 정몽주선생의 선친되시는 일성군의 묘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나라의 부친상에 대한 예법이 미비하여 백일상을 많이 지냈으나 포은 선생은 19세의 젊은 나이로 3년상의 여묘살이를 했다. 동네사람들은 지극한 효자가 태어났다고 하여 지명을 도일리(道日里)라 했다. 그 후 도일리가 지금의 양항리(良巷里)로 바뀌었는데, 포은 정몽주 임고서원의 교육적 역할과 포은 선생의 효성으로 인하여 선량한 동네가 되었으므로 양항리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라 한다.

### \*우항리

굽들(曲坪)은 지형이 굽은 활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인데, 옛날 이 마을에는 아전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連河는 일명 蓮花라고도 불리는데, 동네 앞 못에 연꽃이 많이 피어 생긴 이름이다. 이마을은 조선조 前葉에 황해도 농원군수를 역임하신 朴英孫(1442-1486)의 자손들이 世居해온 마을이다.

### \*평천리

평천리의 동쪽에 있는 부연리(浮蓮里) 마을은 한가운데가 아주 낮아서 마치 연꽃이 떠있는 형상

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고, 북서쪽에 있는 임천(林泉)은 예전에 황기장터인데 주막이 많았고, 숲과 샘이 많아 그런 지명이 생겼다. 그리고 행화촌(杏花村)은 옛날 이 마을에 살구꽃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었으므로 그런 지명이 붙게 되었다.

#### **\* 항강리**

아주 예부터 인류가 정착한 듯하다. 1962년도 경지정리때 돌 화살이 많이 출토되고 근처에 지식묘가 있는 점등을 참고하건대 삼각지대에 가까운 곳이니 필경 예부터 인류가 정착하기에 편리한 곳이다. 조선 인조 당시 임란이 일어나자 향중(鄉中)선비들이 붓을 그만 두고 분연히 일어서 영천성을 전국에서 가장 일찍 복성(復城)하고 그 여세로 경주성을 복성했던 것이다. 의병의 한 분이신 노항 김연(金演) 선생이 전사한 것은 1592년 8월 20일 이었다. 출전하기 전 말하기를 "적이 죽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하고 흰명주 수건에 성명을 써서 허리 속에 띠고 갔다. 순절 후 아들 김취려가 달려가 적시중(積屍中)에서 흰명주에 쓰인 성명에 의하여 시신을 찾아 자양면 귀미에 장사하였다. 선생의 자손들이 근 400여년간 世居해 오는 마을이다. 선생의 충의가 그대로 체재(滯在)되어 그 자손들이 본받으려고 애를 쓴 결과 향내에서도 유명한 마을이 되었다.

#### **\* 효리**

효리의 북동쪽에 있는 솔안 마을은 큰 소나무가 병풍처럼 뽕뽕이 둘러쳐져 있고 그 안에 마을이 있었으므로 그런 지명이 붙었다고 한다. 안태봉(安泰峰)마을은 안태봉산 밑에 있는데, 전란이 벌어졌을 때 어떤 장군이 말을 타고 이 곳을 지나다가 말이 새끼를 낳자 그 태를 이 봉우리에 묻었기 때문에 생긴 지명이다.



## □ 고경면

### \*가수리

이 마을은 500여년전에 영천 최씨가 이곳에 정착하여 웅기를 구우면서 생활을 했다 한다. 옛날 이곳에 가나무로 된 정자가 있었으므로 가정(柯亭)이라 부르다가, 일제때 나무가 많은 곳이라 하여 가수(柯樹)라 칭하고 1934년 행정구역 개편시 1, 2리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고도리

이 마을의 개척자와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옛날 곧은 골짜기란 뜻에서 古道谷이라 불렀다 한다. 敏道란 마을은 주민들이 마을을 개척하여 민첩하게 마을을 발전시키자는 뜻에서 지어진 마을이며, 1934년 행정구역 개편시 1,2리로 분리되었다.

### \*단포리

이 마을이 개척된 것은 200년전에 경주 김씨가 이 마을을 정착하면서부터 시작하였다. 100여년 전 영양현 관리가 석양무렵, 이곳을 순찰할때 강변에 이르자 보름달이 수면에 아름답게 비치고, 흐르는 강물따라 등지를 찾는 물새들의 울음소리 또한 경쾌하여 단포라 했는데, "丹"은 황무지를 뜻하고, "浦"는 갯벌을 뜻한다.

### \*논실리

이 마을의 개척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400여년전 처음으로 김녕 김씨가 이 마을에 정착하였다 한다. 임진왜란 때 영천 의병장, 권정 장군과 김귀희(金貴希)장군이 이곳에서 거문고와 비파 소리로 암호를 정하고 제반 작전을 의논하여 왜군을 크게 무찔렀던 바, 이 마을을 논실(論瑟)이라 한다. 일제 때 일본인들이 강제로 담곡(沓谷)이라 하였는데, 광복 이후 이곳 주민들이 동명을 다시 논실동(論瑟洞)으로 개칭하였다.

### \*대의리

구전되는 바에 의하면, 임진왜란 때 星山李氏조상이 피난와서 이곳에 정착하여 살았다 한다. 이에 동명을 군말, 굼말이라 하였다가, 거룩한 분이 이 곳에서 출생하였다 하여, 거루실, 儀谷, 大谷이라고도 부르다가 행정구역 개편시 "大儀"라 불리어지고 있다.

### \*덕정리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신라시대에 송씨가 황수탕을 발견하게 되어 이 마을을 개척하였다 한다. 한 때는 이 부근 산에서 많은 황을 캐었으며 이로인하여 이 일대는 모기를 찾아볼 수 없는 마을이었다 한다.

### \*도암리

마을의 개척자와 연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300여년전에 황씨가 처음 개척하였고 그 후에 밀양 손씨가 집단이주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 한다. 뒷산에 바위가 많아 도암(道岩)이라 칭하였고 1934년 행정구역 개편시 1, 2리로 분리되었다.

---

---

**\*동도리**

지금부터 200여년전에 김해 김씨인 김성두씨가 이 마을을 개척했다고 구전되고 있다. 이 곳에 조그마한 절이 있었는데 모양과 크기가 같은 부처가 두 개 있어 이 절을 이불사(二佛寺)라 하고 마을 명칭 또한 이불이라 하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추곡면의 전사동 일부를 병합하여 동도(東道)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

**\*부리**

300여년전, 파주 염씨(坡州 廉氏)가 개척하였다고 하며 질그릇을 구웠다고 한다. 질그릇을 구웠던 그릇가마가 있었다 하여 가마골로 칭했고 행정구역명도 부동(가마골)이라 하게 되었다.

---

---

**\*삼귀리**

이 마을을 개척한 때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300여년전에 월성이씨가 이 곳에 정착하였다 한다. 마을 앞에 거북처럼 생긴 바위가 셋 있었다 하여 三髻 또는 三歸라 하였으며, 지금은 삼귀로 불리고 있다.

---

---

**\*오룡리**

이 마을의 역사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임진왜란때 달성 서씨가 처음으로 이 마을을 개척하였다 전한다. 지형이 용처럼 생겼다 해서 미룡(美龍)이라 했는데, 일제때에 강제로 미농(彌農)으로 고쳐 부르다가 행정구역 개편시 오룡(五龍)으로 불리어졌다.

---

---

**\*오류리**

구전되는 바에 의하면 이 곳에 신라시대에 사찰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흔적으로 기와, 옹기 등이 발견되고 있다. 옛날에 이 곳에는 버드나무가 많았기에 오류골이라 불렀는데 이 곳에 마을이 들어서자 마을 이름을 오류골이라 불렀다 한다.

---

---

**\*용전리**

본면에서 비교적 일찍이 개척된 마을로 알려져 있으며, 옛날 마을 동쪽 못에서 용이 못가 밭의 바위에 앉았다 승천하였다 하여 용전(龍田)이라 칭하고 추곡면(追谷面)에 속하였다. 1934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고경면에 속하게 되었으며, 1, 2리로 나누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

---

**\*전사리**

이 마을의 개척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디딜방아"를 보아 800년전이라 추정하고 있다. 경주 김씨가 이 마을을 개척하였다 하여 마을 앞에 백사장이 있었다하여 전사(前沙), 새일 앞새일이라 불렀다 한다. 1934년 행정구역 개편시 1, 2리로 분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

**\*차당리**

이 마을의 개척자와 연대는 알 수 없으며 본래 흥해군 북안면에 속했으나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고경면 차당리(次堂里)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

**\* 창상리**

전하는 바에 의하면, 병자호란 후 東萊人, 鄭雲南이란 사람이 이 마을에 정착하였다 한다. 병창 뒤편에 있다해서 뒷골이라 하였으며, 또 병창 위쪽이 되므로 창수 창상이라 하였다. 현 단포 농협창고 옆으로 흐르는 물 줄기를 따라서 북쪽 용담 병창고까지 강을 이용해서 군량미를 운송하였으니, 여기서 창고 위 지역을 倉上이라 칭한다.

---

---

**\* 창하리**

구전되는 바에 의하면 250여년전에 水原白氏가 이 마을에 정착해서 다래 덩굴을 쳐내고 살기 시작하였으며 옛날 이 곳에 병창이 있는 아래에 큰 바위가 있어 창방우라고 하였으며 그 후 優氏와 李氏가 창방우 안쪽에 정착하여 살던 중 각 성씨가 모여들어 창방우와 안부락이 합쳐지게 되어 큰 동네가 되었다 한다.

---

---

**\* 청정리**

마을의 개척연대는 알 수 없고, 옛날부터 거울 같이 맑은 물이 흐른다 하여 청경(淸鏡)이라 하였는데, 이는 옛 청경면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 마을에 회나무 정자가 있어 괴정리(槐亭里)라 하다가 1934년 4월 1일 행정구역 변경시에 청정리(淸亭里)가 되어 1, 2리로 분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

**\* 초일리**

마을 뒷산에 "고려장"이 있어 고려시대에 이 마을이 개척되었다고 추측한다. 徐氏가 처음으로 익새, 속새등이 무성한 이곳을 개척하여 기름진 마을로 만들었다 하여 초일(草日)이라 불렀으며 현재 행정구역명으로 불리고 있다.

---

---

**\* 파계리**

이 마을의 개척자와 연대 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350여년 전에 밀양 박씨가 처음 개척하였다 한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이곳에 침입하여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쉬다가 이 지방 주민들에게 두 차례나 크게 섬멸당하였다 하여 "敗愚"라 부르다가 한일합방 이후 행정구역 개편시 "파계"라 칭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

---

**\* 학리**

옛날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화전민 생활을 하기 위하여 이 마을을 개척하였다 한다. 학이 많이 서식하였다 하여 학리(鶴里)라 칭하였다.

## □ 북안면

### \*고지리

고지는 지금부터 약 90여년전 마을이 개척되면서부터 마을 모양이 창고와 비슷하다 해서 불리어 졌다 한다. 원래 영천군 비소면에 속해 있었다. 八岩은 마을 앞에 바위 8개가 있다. 중국의 진시 황이 만리장성을 쌓을때 회초리로 바위를 몰고 가다가 城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대로 둔 것이라 전한다. 지경은 옛날 영천과 경주의 경계지이기에 생긴 이름이다. 1914년 읍면통합시 고지, 新溪, 八岩의 일부와 경주군 서면 일부가 합해서 고지리가 된 것이다.

### \*당리

당리는 원래 영천군 原谷面이었으며 면소재지였다. 사룡산 밑에 신당이 있었으므로 堂里라 했다. 또는 金夫洞이라고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변경시 북안면에 편입시켰으며 마을 개척은 서기 1590년대라 전해온다. 中里는 들 중앙에 있으며 예부터 취락이 형성된 곳이기도 하다. 다른 자연 부락에 비하면 가장 큰 마을이다.

### \*도유리

도유리는 原谷面 의 한 지역으로 경주에서 서울로 가는 한 길목이었다. 그래서 도유리라 했으며 약 500여년전에 개척했다고 전한다. 도유지는 북안면 전체의 농업용수가 되었으며 수량이 매우 많다. 윗마을에는 김해 김씨가 주성이며 12가구이고 아랫마을에는 여러 성씨들이 모인 마을이다. 광릉은 광주 이씨 시조인 李 唐선생의 묘가 능처럼 생겼기에 廣陵이라 한다.

### \*도천리

괴화마을에는 회화나무가 많으며 마을이 처음 개척되기는 아마 고려이전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다. 조선 선조대왕때 노계 박인으로 선생께서 살았으며 도천리에는 최근에 생긴 마을로 팔골이 있다. 연당은 1592년에 朴世基라는 선비가 마을을 개척했다하며, 마을 중심에 연못이 있었다고 전한다.

### \*명주리

명주리는 영천군 원곡면에 속했으며 강변 마을이 있다. 들밭은 가장 넓은 곳에 위치하고 새터는 서쪽에 넓은 보가 있다. 용주는 시장터였으며 옛날에는 경주군, 청도군, 대창면 사람들로 붐볐다. 倉基는 옛날 곡물을 저장해둔 창고가 있었다고 하고, 무기창고가 있었다고도 전한다. 1915년 명주와 용주 두 마을이 합하여져서 되었으며 이 마을은 원곡면 소재지였다.

### \*반계리

마을이 개척되기는 지금부터 약 600여년전 고려시대라 전한다. 넓은 들과 아름다운 주위환경, 깨끗한 시내가 있으며 이곳에 있는 盤石은 그 類를 타처에서 볼 수 없을 정도이기에 반계라 했다 한다.

### \*북리

북리는 본래 원곡면의 지역으로 羅峴과 합하여 1914년 개편된 마을이며 세골은 구룡산 밑에서

큰 마을까지 길고도 좁은 계곡이 약 500m나 되며 대리는 가장 큰 마을로 옛날에 큰 집이 있었다고 전한다. 北里는 북골이라고도 하는데, 마을 모양이 벼는 "북"처럼 생겼다하여 지은 이름이기도 한다. 상마을 또는 大里는 북동의 안쪽에 있다하여 상마을이라고 하며 현재 월성 김씨가 가장 많고 전체 50여 가구가 살고 있다.

#### \*상리

上里는 옛날에는 영천군 原谷面이었던 지역인데 1914년에 인근 마을을 병합하여 四里라 하였다. "四"자가 불길하다고 하여 上里로 고치고 북안면에 편입시켰다. 못마을 또는 柑洞은 예부터 수자원이 풍부한 곳이기도 하다. 신촌은 김녕 김씨 칠대조께서 감동에서 분가하여 이 곳에 정착했다 한다. 양지촌은 가장 일찍 부터 인류가 정착한 듯한 곳이기도 하다. 여러 성씨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다. 김녕 김씨가 가장 많이 사는 집성촌은 新村이다. 굽말 또는 굽말은 마을 깊은 곳에 위치한다하여 지은 이름이다.

#### \*서당리

원래 영천군 比召面에 속했으며 서당, 오산, 冷井의 일부가 합하여 서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서당리가 되었다. 冷井리는 서당골 북쪽에 있으며 冷水가 솟아나는 샘이 있다하여 냉정이라 했으며 현재도 그대로 식수로 이용한다. 김해 김씨가 주 성이다. 明村은 서당골에서 냉정으로 넘어가는 산 기슭 양지바른 곳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뜻으로 명촌이라 했다한다. 서당골은 比召面 지역으로 서당을 세우고 인근마을의 학동들을 수학하게 했다하며 김해김씨가 主姓이다.

#### \*신대리

범배기들 : 현재 몇집이 살고 있는데 갑오년에 흉년이 들었을때 이 곳에 살던 한 농부가 범벅죽(호박죽) 한 그릇을 얻어 먹고 논 한 마지기를 주었다 하여 이 마을을 범배기들이라고 한다. 두리봉 : 현재 3가구가 살고 있으며 둥그스름한 두리산 밑에 있다 하여 생김이름이다. 지금부터 약 600여년전에 개척된 마을이라 전한다. 새터, 새마을 : 박씨와 김씨가 50여 가구 살고 있으며 광복 전 두리못의 확장으로 마을이 모두 두리봉 못 밖으로 나와 새마을을 이루었다고 새터라 한다.

#### \*신리리

新里와 新坪 일부가 이 마을에 속한다. 신리 또는 신촌은 1480년경, 영천군 比召面의 成以直선생이 개척하여 새마실이라고 했다. 창녕 성씨가 27가구이며 晚川精舍가 있는데 경재 성이직 선생이 도원도찰방 재직중 병자호란이 일어나자당시의 굴욕을 개탄하여 조용히 산림에 은거하여 후학육성에 전력했다. 황무지를 개척하여 마을을 형성했다 하며 총 24가구가 살고 있으며 진주 하씨가 주성이다. 노리미는 뒷산의 모양이 노루모양이고 이 마을은 그 꼬리부위에 위치한다 해서 지은 이름이다.

#### \*옥천리

구전되는 바에 의하면 이 곳에 신라시대에 사찰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흔적으로 기와, 옹기 등이 발견되고 있다. 옛날에 이 곳에는 버드나무가 많았기에 오류골이라 불렀는데 이 곳에 마을이 들어서자 마을 이름을 오류골이라 불렀다 한다.

---

---

**\*임포리**

월성 이씨들이 약 800여년전에 개척했다한다. 개척당시 마을 앞 삼변에 울창한 버들숲이 있었다 하여 林浦라 칭했다하며 고려 현종시에는 경주에 속했다가 태종 14년에 영천군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서 比召面의 팔암리를 병합하여 임포리라 했다. 새각단은 산밑의 마을로 , 새로 조성된 마을이라 새각단이라했다하며, 뒤에는 청용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절은 신앙심이 강한 어느 부인이 건립한 절이라

## □ 대창면

### \*강회리

江回와 馬音으로 이루어졌으며 강회는 속칭 공덕이라고도 한다. 약 100여년전 呂氏라는 부자가 살았는데 사람들에게 후한 대접을 했다 하여 공덕이라 칭하게 되었다. 馬音은 옛날 이 마을에 사는 이씨가 오얏나무밑에 말을 많이 묶어 두었더니 나무가 흔들리고 말이 소리를 질렀다고 하며, 신공덕은 근간에 개척된 마을로 강회입구의 마을이다.

### \*구지리

上求, 下求, 教洞, 求教의 4개 자연부락으로 되었으며 개척시기는 알 수 없다. 上求를 웃뜸이라 하며 지형이 꽃 모양으로 피었다하여 求芝라 하며, 약 50여 가구가 살고 있다. 下求是 상구 아래이니 아랫뜸이라고 하며 약 40여 가구가 살고 있다. 新基는 북쪽에 새로 생겼으며 논둑에 처녀 바위가 있다. 長谷은 긴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약 20여 가구가 살고 있다.

### \*대재리

밴마아, 배마실, 대재동 : 김해 허씨, 밀양 박씨가 주성이며 약50여 가구가 살고 있고 동쪽 대재 못에서 약 200m 쯤에는 유후재가 있다.

### \*대창리

예부터 내려오는 사리 1부와 옛 대창리 일부를 합하여 1914년 시군 통폐합시 새로 동을 조정할 때에 대창이라 했다. 크게 번창한다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며 1, 2리로 나누어져 있고 소재지이다. 細馬는 처음엔 몇집만이 살았으나, 약 100여년전부터 마을이 늘어 경지정리로 인하여 매우 깨끗하게 보인다. 新堂은 옛날에 동제를 지내는 신당이 있었다고 전한다. 포척은 원이름이 개자리였으나 한자로 표시하다보니 浦尺이 되었다.

### \*병암리

병풍바위 앞 남쪽에 동서로 길게 뻗은 절벽이 마치 병풍처럼 생겼으며, 松邱里는 골짜기가 가늘고 긴 곳에 마을이 있으니 細里라 했다 한다. 남쪽 냇가에는 조씨의 재실이 있는데 약 300년전에 건립한 것이라 하며, 七田은 옷나무가 많음으로 漆田이라 부르다가 와전되어 칠전으로 변했으며, 가는골은 못안을 말하며 옛날에는 소먹이는 곳이었다 하고, 곱두리는 옛날에 읍소재지였다 한다. 당솔은 큰 소나무가 무성했으며 아랫마을은 금호읍과 경계해 있다.

### \*사리리

사리는 마을 전체를 가리키며 싸리가 많은 마을이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라 한다. 싸리를 沙리로 변경했다. 한 못안을 용덕리라고도 한다. 약 100여년전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한다. 저수지 안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동네 앞에 다리를 용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전설에서 유래된다고 한다. 현재 60가구가 살고 있다.

### \*신광리

가장 큰 마을이 개상골이다. 앞에는 들이 있고 위에는 못이 있다. 뒷산의 모습이 介字모양이며

앞산이 字 모양이라서 介字라 했다 하며, 새일, 썰, 효일은 효일령 밑에 있는 마을로 효일령에 해 뜨면 가장 일찍 해가 비친다고 한다. 안새일이 있고 아랫각단이 있으며 두각단이 있다. 점마, 지 일내를 경계로 동은 지일, 서는 옹기 굽던 점 마을이다. 오복실은 옛날에는 여러 집이 있었으나 지금은 텅빈곳이다. 입구는 좁으나 안은 넓게 개전되어 대창면 남부의 지형을 형성하고 있는 마을이다.

#### \*어방리

어배이, 어방리, 신원 : 方자는 온양 方氏가 많이 산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광복후 신원으로 고쳐 줄 것을 건의했으나 기각되었다 한다. 새터 새각단 : 온양방씨의 정각이 있으며, 조선 말엽에 생겼다고 한다. 안각단은, 앞에 案山이 있고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건너 각단은 안각단에서 시내를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울을 건너 다녔기에 생긴 이름이라 한다.

#### \*용호리

탐마을, 산잠동, 원촌, 송호, 용교가 합해서 된 마을이다. 山岑은 탐마을이라고도 부르며 옛날에 탐이 있었다고 하며, 파손된 윗부분은 영지사로 옮겼으나 기석은 논 가운데 묻혀 있다. 용호본동은 냇물을 중심으로 옛날에 건너다니는 나무다리가 있었다고 한다. 송호동, 송오는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며, 마을 주위에 松나무가 울창했기에 지은 이름이다. 못안은 도화제내에 있는 마을이며, 입구에 지산 조호익선생의 강학소이던 도잠서원이 있다.

#### \*운천리

까치락골, 운잠, 운천은 동방이 합해서 된 마을이며, 평탄하며 까치가 날아가는 듯한 모양이라 하여 지은 이름이다. 남창은 옛날에 큰 창고가 있었던 곳이며, 지금은 직천, 운천, 용전의 3개 마을 공동 창고가 있다. 우기미, 우금은 앞산 모양이 거문고 형상이라 하여 지은 이름이며 임하골에서 남쪽으로 500m지점에 있다. 임하골은 동리 입구에 임하 숲이 있다.

#### \*조곡리

토질은 메마르나 풀은 무성하게 자랄 수 있다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며 상조리 밖 넓은 평야지에 있다. 줌실, 上助谷 : 긴 골짜기로 상리와 하리가 있으며, 옛날에 활빈당이 이곳에 와서 旗를 꽂았다는 말이 있다.

#### \*직천리

피내, 직천 : 마을 앞의 내에 피가 많기에 피내라 했다. 일정시 흐르는 내가 비교적 곧게 흐른다고 직천이라 했다. 나곳, 나골 : 정상동에서 분리되어 나온 마을이며 光州 盧氏가 主姓이다. 불방재 : 골짜기에 부처가 있었으며 정상동은 약 30여년전에 노씨 정각이 지어져 있었다. 동명은 정각이 있기 이전부터 일컫던 이름이다. 이사막골은 500년전부터 인삼을 많이 재배했기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 지은 막이 있었다. 직천과 정상을 합해서 이루어진 마을로서, 마을이 이루어진 것은 아주 옛날일 것으로 추측한다.



## □ 동부동

### \*망정동

나지막하게 뻗어있는 마현산 동북쪽 자락 분지에 위치한 부락이다. 지금은 공업단지가 들어서 광활한 평지로 변모해 있으나 옛날에는 사방으로 작은 산들로 쌓여 있는 곳이었다. 이곳에는 예부터 못을 막아 비교적 넓은 평야를 보유하고 가뭄 걱정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풍부한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곳에는 높은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정자의 기능이 풍류를 즐기는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영천성의 외곽지여서 적들의 침범을 경계하는 감시 기능을 하던 정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름이 망정이라고 불렀다 한다.

### \*신기동

신기동은 3개의 자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맛대배기, 금당골, 하신기 등이다. 맛대배기는 경상도 방언으로 마을 첫째라는 뜻이고 대배기는 정상이라는 의미이다. 즉 최정상의 마을, 이를테면 윗마을이라는 뜻이다. 금당골은 옛날 금이 생산되었다는 연유로 지어진 명칭이고, 하신기는 글자 그대로 아랫마을이란 뜻이다. 행정체제가 구성되면서 언하동에 할애한 일부를 제외하고 하천면(河川面)에 속하였다가, 1914년 행정개편 때 신설된 임고면에 속하였다.

### \*야사동

영천의 옛 명칭이 절야화군(切也火郡)이다. 그러므로 절야화군과 야사(也史)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강 건너편의 금강산성(金剛山城)은 신라시대의 성이고 보니 이 지역은 고대 문화의 중심지라 믿어진다. 이 동네는 보목골, 화지대골, 죽은나무골, 분통골등의 속칭으로 불리었는데 보목골은 일명 버들골이라고 부르며 버드나무 숲이 무성하여 지칭하였다고 하며, 화지대골은 화전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라서 불린 이름이라 전한다. 그리고 죽은나무골은 원래는 울창한 숲으로 덮여있었는데 어느해 3년동안 가뭄이 계속되어 나무들이 모두 말라 죽었다고 전해진 명칭이며, 분통골은 농사를 원만히 짓기 위해 저수지를 막았으나 장마철만 되면 못둑이 무너져 주민들이 화가 치밀어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언하동

언하동은 보현산에서 발원된 자호천이 남으로 흘러 내리면서 영천시 경계지점에서 제법 발달된 하천 연안 평야를 이룬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동쪽과 남쪽으로는 기름진 평야를 끼고 있으며, 서쪽은 작은 산야가 그림처럼 마을 뒤를 받치고 있다. 그리고 북쪽은 역시 일직선으로 평야와 산세가 멀리까지 이어져 있다. 좀 더 설명하자면 북쪽으로는 영천시 임고면의 경계지점이고 남쪽은 영천-포항간의 국도를 경계로 조교동과 구별된다. 또 동쪽은 평야 끝 부분의 자호천이 고경면 단포동과 구별하고, 서쪽은 산등성이를 경계로 망정과 구별되어 있다. 죽배, 원지(原地), 세미 등이 언하동의 자연지역 명칭이다. 죽배는 배나무가 많았던 지역이라서 붙여진 명칭이고, 원지는 지금으로부터 400여년전 편(片)씨가 살던 지역으로 그 후손들이 원적이란 뜻으로 부르던 것이 명칭이 되었다고 한다. 또 세미는 일명 천미라고도 하는데 우물이 마르지 않고 물 맛이 좋다는 뜻에서 기인된 이름이다.

### \*조교동

북쪽에서 흘러내리는 자호천과 동쪽에서 흘러 오는 고경천이 합류한 지점에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북쪽과 서쪽으로 질편한 장천평야가 멀리 이어져 있고 동남쪽 강 건너 편에는 수 많은 전설

을 간직한 금강산이 병풍처럼 배경을 이루고 있다. 마을의 역사에 관해서는 정확한 문헌이나 유적은 없고 다만 구전에 의하면 삼국시대 부터 동네를 형성하였다고 한다. 이는 주위의 부락에 관한 야사(野史)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옛날부터 영천문화의 핵심을 이룬 주변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곳에는 조흔달, 장천 등의 자연부락이 있는데 조흔달은 이 동네와 강 건너편 완산동과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 주민들이 좋아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장천은 옛날 부근에 노루가 많이 서식하여 생긴 이름이라 한다. 1914년 대동면에 소속되어 있던 것을 면 통합령에 의하여 영천면에 소속되었다. 그후 1981년 영천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새로 구성된 동부동에 속하였다.

## □ 중앙동

### \*과전동

영천지역의 여러 동네중 가장 지역이 좁은 곳이다. 이 마을은 척박한 산비탈을 활용하여 농지를 만든곳 이라 하여 속칭 조밭골 혹은 울전이라 불린 곳과, 성내와 과동의 중간지점에 작은 산등성이로 구성되어 두 지역 어느곳이나 속할 수 있다 하여 구전된 쌍속골로 구성되었다. 즉 쌍속골에 소재한 서과동(西果洞), 조밭골에 속한 양구동(羊邱洞)과 지침동, 창구동과 경계를 이룬 일부 지역을 할속받아 명명된 동네다. 원래 양구동, 서가동, 지침동은 내서면에 속하였으나 1914년 행정개편과 함께 영천면에 편입되었다. 그 후 1981년 영천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새로 구성된 중앙동에 속하였다.

### \*녹전동

원래 녹전동은 여러 이름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었다. 이를테면 원녹전, 활수, 석동, 창녕골, 가장골, 대추골, 서당골, 예정곡 등이 그것이다. 원녹전은 일명 창동이라고도 부르는데 정간(鄭幹)선생이 청백리로 녹선되면서 나라에서 받은 땅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활수는 활처럼 물길이 굽어 돌아간다는 자연형태를 보고 만들어진 이름이다. 즉 이를 합하여 녹전 1동으로 하였다. 석동은 비석이 있는 지역이라 칭하였고, 창녕골은 창녕 성씨가 살았던 지역이라 하여 지칭되었고, 가장골은 이곳에 큰 웅덩이가 있어 용이 승천한 지역이라 하여 불렀는데 이를 통칭한 것이 녹전 2동이다. 또 대추골은 대추나무가 있던 지역으로 임진왜란때 전몽용선생의 아들 5형제가 의병활동을 하여 아름답리 대추나무에 다섯개의 관인을 걸었다는 사록과 관련하여 알려진 이름이고, 서당골은 서당이 있었던 지역이며, 예정곡은 전삼성 선생이 문인들에게 학문을 강론하며 예절을 연수시킨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를 합한것이 녹전3동이다. 1998.10.20 중앙동에 통합되었다.

### \*도림동

도림동은 원래 숫골, 못밑, 후리동, 흙골, 뱀밭골, 곧은골, 중골, 선창, 천왕지 팔밭등 여러 지역의 자연 명칭이 어우러져 이뤄진 마을이다. 숫골은 옛날 숫을 구웠던 이름이고, 후리동은 그물을 던지는 형세라 하여 붙여졌고, 선창은 마을 앞에 복천이 흐르므로 나룻배가 왕래하는 나루터라 하여 칭해진 이름이다. 또 천왕지는 성황당이 있어 생겨진 이름이고, 화전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라 하여 팔밭이라 했다. 이러한 여러 지역이 근대적인 행정체계를 갖추면서 도림동, 직동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다가 1914년 행정개편으로 명산면에 속해있던 도림동이 신설된 화동면에 편입되고 주위의 녹전동 일부와 고현면 하흥동을 합하게 되었다. 그 후 화동면이 폐지되고 영천면에 속하였고, 다시 1981년 영천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명산동에 속하게 되었다가 1998.10.20 중앙동에 통합되었다.

### \*매산동

이 마을은 4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형이 목마른 말이 물을 찾는 형세라 하여 불린 탕마(湯馬), 찾아온 새가 울고 지나갈 정도로 척박한 지역 이란 뜻으로 지어진 하명(下鳴), 마을 앞을 흐르는 냇물이 마치 반달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월계(月溪), 고분이 있는 지역이라 하여 생긴 구무덤등이다. 즉 구무덤과 월계를 합하여 매산 1동이 되었고, 하명과 갈마을 합하여 매산 2동이 되었다. 근대 행정체계가 이루어지면서 신녕군 대양면에 속하였으며 1914년 행정개편 당시 신녕군은 폐지되고 신설된 화산면에 속하게 되었다. 이때 기존 하명동, 월계동, 갈마을, 구무덤을 비롯하여 대천동(大川洞)일부와 녹전동 일부가 포함되었다. 1983년에는 다시 영천군 화산

면에서 영천시 명산동으로 개편 소속되었다가 1998.10.20 중앙동에 통합되었다.

#### **\*문내동**

마현산(馬峴山) 남쪽 비탈에 자리잡은 성내 5개동 가운데 동쪽으로 위치한 마을이다. 동쪽으로는 도수장골의 깊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문외동과 인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성내의 중심지인 창구동과 접하고 있다. 또한 남쪽으로는 남천이 흐르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마현산 자락을 접하고 있다. 영천지역에서는 창구동과 함께 행정의 중심지였다. 옛날 동헌을 중심으로 일대를 관아터라 부르고 군청 동편은 형방터, 군청 서편은 이방터라 지칭되고 있었다. 또한 미륵불이 있던 산마루라 하여 부처만당, 개화시대에 염가로 매매가 이루어졌다 하여 불린 염매시장을 통틀어 문내동이라 하였다.

#### **\*문외동**

마현산 주봉을 중심으로 남쪽 비탈을 성내(城內)라고 하는데 동쪽 도수장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 일대를 문외동이라 한다. 북쪽으로는 마현산 줄기를 길게 배경을 하고 남쪽으로는 남천과 연접해 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야사동, 망정동과 연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성벽과 사이를 두고 있다. 물론 지금은 도시개발에 의해 약간의 흔적만 남아 있을 뿐 대체로 평지를 이루어 문내동과 연결되어 있다. 문외동은 영천동문 밖 동네라고 하여 문외동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 동네는 옛날 도수장골과 성 밖 시민들의 교육기능인 서당이 있었다고 일컫는 서당골과 용이 승천한 지역이라 불린 용당골로 구성된 마을이다.

#### **\*오미동**

오미동은 네개의 부락이 형성된 마을이다. 속칭으로 삼귀(三歸), 조미(鳥味), 절골, 점골등이다. 그 외에도 연악, 움터골등이 있으나 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삼귀는 학 세마리가 살다가 어느 해 모두 떠나버리고 돌아오지 않아 상스러움이 기울어졌다고 안타까워 붙여진 이름이라 하고, 외머리는 지형지세가 마치 까마귀의 머리 혹은 까마귀의 꼬미(鳥尾)라고도 불렀으며 글자의 변화로 오미(五味)라고 지칭되었다 한다. 또한 절골은 사찰이 있었던 지역이라 유래되었고, 점골은 도요지가 있던 지역이라서 연유된다. 1998.10.20 중앙동에 통합되었다.

#### **\*창구동**

예부터 영천지역의 가장 중심부를 이룬 동네다. 북쪽으로는 마현산 주봉이 버티고 있고 남으로는 남천이 흐르고 있다. 동쪽으로는 문내동과 인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교촌동과 과전동을 접하고 있다. 특히 이 부락은 남, 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옛날 남문과 북문이 모두 소재한 지역이다. 정확한 문헌은 없지만 제도적 행정체계가 확립된 후로는 영천지역의 중심역할을 한 동네다. 이 지역에서는 진청마당, 개웅굴샘, 옥터, 객사터, 성문터, 형방터, 호방터 등의 속칭 지역이 많은 곳이었다. 문헌상 존재하는 행정명칭으로는, 관아 주위로 형성된 남쪽 지역인 관덕동(官德洞)과, 객사와 관청주변으로 이룩된 북부지역인 창구동이 있다.

## □ 서부동

### \*교촌동

교촌동은 마을 뒤편에 위치한 마현산 비탈에 향교가 있어 명명된 명칭이다. 예부터 이곳에는 여러 가지의 속칭이 있다. 마을에 동제나무가 있어 동네의 안위를 기원하였다 하여 불린 지당골이 있고, 지역의 동구보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넓다고 하여 불려진 깎골이 있고, 영천에서 서쪽으로 만리(萬里)까지 갈 수 있다 하여 서만리골이 있다. 그 외에 신사터, 새골, 잣고개 등이 어울려 불리던 마을 이다. 행정 명칭은 서쪽으로는 노상동(路上洞), 교촌동(校村洞)이 내서면에 속해 있으며 1914년 행정구역조정 때 내동면 창구동 일부와 합하여 교촌동 1, 2구로 명명되고 영천면에 속하였다. 그 후 다시 1981년 영천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교동(校洞)에 속하였다.

### \*대전동

대전동은 지금도 그렇게 부르지만 원래의 행정명칭은 상대전동과 하대전동이다. 이 마을은 원래 영천 이씨가 주류를 이루던 마을로 대부분 이 보흠 선생과 연관된 지명을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세조시대 순흥부사로 재직하던 이 보흠선생이 단종 복위 운동을 펴다가 참형되는데 이를 기리기 위해 그분의 호인 대전(大田)을 따서 마을의 명칭으로 하였던 것이다. 마을의 자연지역 명칭이 수양곡, 서산곡, 순흥연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충절을 기리는 뜻에서 연유된 것이라 생각된다. 서산곡은 주나라의 백의와 숙제가 침략자의 곡식을 먹지 않는다는 뜻에서 수양산에 은거했다는 충절을 이 보흠과 비유해서 생긴 명칭이고, 수양곡은 수양대군을 비유하였고, 순흥연은 영주군의 순흥을 지칭한 것이다.

### \*오수동

오수동은 아름다리 버드나무가 다섯그루 있어 불린 이름이라 한다. 이 나무는 50년대까지 있었으나 어느해 심한 태풍으로 인해 물길에 파여졌다고 한다. 원래의 명칭은 청통(淸通)이며 그 뜻은 항상 맑은 물이 흘러간다고 붙여진 것이다. 이 마을은 원래 역촌(驛村)으로 발달한 마을로 영천성(永川城)밖에 위치하며 여러 문헌에도 청통역이라 기록되어 있다. 근대 행정체제가 확립되면서 산저면에 속하였으나 1914년 행정구역이 조정되면서 산저면은 폐지되고 신설된 청통면에 속하게 되었다. 그 후 1983년에는 다시 영천시에 편입되어 읍면에 해당되는 교동(校洞)에 속한다.

### \*화룡동

화룡동은 속칭으로 여러 자연지역이 모여 형성된 마을이다. 즉 노전(老田), 누터, 장승배기, 군위터등이다. 노전은 옛날 연안이씨가 살고 있었는데 차츰 가세가 몰락하여 이제 지기가 다 되었다 하여 불렸으며, 그 후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살면서 다시 융성한 동네가 되어 늙은 땅이 용으로 승천한 것과 같이 옛 정기가 다시 돌아왔다는 뜻에서 화룡이라 불렀다 한다. 또 누터는 옛날 이 부근에 누각이 있었다 하여 명명되었다고 한다.

## □ 완산동

### \* 완산동

완산동은 남천강변에 형성된 마을이다. 동쪽은 금강산이 있고 서쪽은 멀리 주남평야가 금호강 연변까지 이어져 있다. 또한 남쪽으로는 역시 주남평야가 펼쳐져 금노동과 접하고 북쪽으로는 남천을 사이에 두고 문외동과 문내동이 접하고 있다. 남천연안은 오래전부터 과수지대로 이름이 있으며 금강산성이 있어 이지역의 문화적 핵심이 되는 동네다. 또한 이 마을은 영천문화의 중추적 지역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영천은 골별국이라는 부족국가가 있었는데 서기236년에 신라에 투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초에 황보능문이 금강성을 방어하였다는 내용을 보아 오랜 역사를 지녔음이 입증된다.

이곳에는 여러개의 고분이 군집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완산동은 안완산, 바깥완산, 개고개, 말죽거리등의 자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완산은 금강산 바로 밑에 형성된 자연부락이고 그 외 지역은 통칭하여 바깥완산이라고 한다. 후에 행정명칭이 부여되면서 안완산은 완산면 내동, 바깥완산은 외동으로 명명되어 왔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때 완산면이 폐지되고 영천면에 속하면서 완산동이 되었다. 1981년에 영천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군부의 읍면에 준하는 완산동이 된 것이다

## □ 남부동

### \*괴연동

마을은 동괴동(東槐洞), 서괴동(西槐洞), 용연동(龍淵洞)의 자연부락을 통칭하여 괴연동이라 한다. 원래 괴연은 회나무가 많은 지역이고, 용연이란 못이 있어 괴동의 첫글자와 용연의 끝자를 합하여 부르게 되었다. 즉 괴나무가 많았던 지역의 길을 중심으로 동쪽은 동괴동, 서쪽은 서괴동이고, 용연(龍淵)혹은 용소골은 용연동이었다. 또한 점촌은 일명 점등이라고 부르며 옛날 도요지가 있던 지역이라서 명명된 지역이다. 이 마을은 예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 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여러기의 고인돌이 있고 많은 고분이 있다. 이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는 가야 토기와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으니 삼국이전에 이미 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금노동

금노동은 세 동네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노1동인 쇠늘이는 온 동네가 넉넉하여 붙여진 이름이나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가난한 사람이 늘어가니 부유함이 쇠퇴해 간다고 안타까워서 생긴 이름이다. 금노2동인 담안은 이곳에 있던 영천 외성(外城)의 안쪽이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으며 성 안이란 뜻으로 지어진 명칭이다. 금노3동인 주남은 글자 그대로 주남평야의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어 지칭된 명칭이다. 일면 부흥동(富興洞)이라 부르기도 한다. 원래 완산면에 속하였으나 1914년 행정개편으로 영천면에 속하고, 1981년 영천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주남동에 속하게 되었다.

### \*도남동

도남동은 청제평야의 북단지역에 위치한 부락이다. 마을은 윗각단, 아래각단, 불당골, 사이각단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는 청제비의 유적으로 보아 서기 5백년 부터 사람이 살았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아울러 문헌에도 도동화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후 현대적인 행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칠백면 도동동이 되었다. 1914년 행정조정때는 도동동과 예곡면 봉동 일부를 편입하여 도남동으로 개칭하고 금호면에 복속 시켰다. 다시 1983년 2월 15일 행정조정에 의하여 봉작동에 속했다.

### \*도동

도동은 원래 도남동과 같은 문화권에 있었다. 신라시대에는 도동현(道同縣)에 속하여 있었으며 당시로는 상당한 문화지역이었음을 몇몇 문헌이나 유적에서 감지할 수 있다. 이곳은 전촌(錢村), 동당(東塘), 구역(舊驛), 옹기점 등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촌은 옛날 주소소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동당은 동편에 못이 있다하여 생긴 이름이다. 그리고 옹기점은 도요지가, 구역은 영천지역 최초의 역이 있었던 지역이다. 또 요도는 옛날 죄인의 유배지로서 금호강과 북안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자연적으로 삼각주가 만들어진 곳이다. 이와 같이 모든 자연부락을 통합하여 도동이라 불렀으며 완산면에 속하였다. 그러나 1914년 행정개편으로 완산면이 폐지되고 새로 구성된 영천면에 속하고 그 후 1981년 영천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다시 주남동에 속하게 되었다.

### \*범어동

범어동은 두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네다. 안범어와 진네기인데 안범어 마을 뒷산이 마치 물위에 떠있는 고기와 비슷하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고, 진네기는 옥비녀처럼 길게 뻗은 들

판이 있어 항상 풍작을 약속하는 기름진 땅이라고 붙여진 이름이다. 이 동네는 원래 완산면에 속하였으나 1914년 행정개편과 함께 영천면에 속하였고 그 후 1981년 영천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봉작동에 속한다.

#### **\* 본촌동**

원래 이 마을은 예실이라 불렀다. 담들, 오실들, 뱅방골, 고래천 등 자연지역을 통칭하여 동네를 이루고 있다. 담들은 예실못둑을 지칭하여 생긴 명칭이다. 구전에 유씨라는 성씨를 가진 분이 살았는데 못을 막고는 후손이 끊어지고 살림이 줄어들어 다른곳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이유인즉 유씨의 선조 유택이 마침 벌과 같은 형세이므로 못을 막고나니 벌이 못에 빠지는 형상이었다는 풍수지리설 때문이다. 또 뱅방골은 마을의 어떤 사람이 나들이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도깨비에게 정신이 빼앗겨 밤새도록 주위를 뱅뱅돌고 있었다 하여 지칭된 명칭이라 한다.

#### **\* 봉동**

봉동은 원래 봉강동이다. 예를 숭상한 지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은 큰마을을 비롯하여 신당골, 정모랭이 등이 있다. 신당골은 원래 신당이 있어 지칭된 지역이고 정모랭이는 옛날 이동네 사람이 죽었는데 마침 이 지역에서 상여가 움직이지 않아 마을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잘 가기를 빌어 간신히 상여가 움직였다고 한다. 그래서 정을 두고 돌아가는 길이라 하여 지칭된 명칭이라고 한다. 행정적으로는 원래 봉동으로 예곡면에 소속되었으나 1914년 개편과 함께 주막동 일부와 합하여 영천면에 속하였다. 1981년도에 영천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새로 지칭된 봉작동에 속하였다.

#### **\* 채신동**

채신동은 원래 명칭은 신동(新洞)이었다. 즉 본촌동과 괴연동 사이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물론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가옥이 몇집 되지 않아 행정상 동네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차츰 세대가 늘어남으로써 독립된 동네가 되었다. 마을은 신동을 비롯하여 양지평, 덕골, 독대골, 황산 등의 자연지역을 통괄하여 이루어졌는데, 환산은 원래 황삼(黃森)으로 이곳에 집단적으로 삼밭이 있었다고 지칭된 명칭이다. 신동은 1914년 행정개편 당시 채신동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예곡면에 속하였으나 그 명칭이 없어지고 영천면에 속하였다. 다시 1981년 영천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영도동이 신설되어 이에 속하게 되었다.